

Style 조선일보

JULY 2012 vol.77

True love has a colour and a name



front
STORY

2012 런던올림픽,
디자인과 예술에 매혹되다



38



18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까르띠에 브라이덜 컬렉션(Cartier Bridal Collection)의 솔리테어 1895 링과 웨딩 밴드다. 1895년 루이 까르띠에가 디자인한 4개의 돌을 필레트와 와이어 보디로 이루어진 마운트는 균형미와 우아함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다이아몬드를 조화로운 비율로 컷팅해 스톤의 가치를 전면에 부각한 이상적인 디자인이다. 플래티넘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중앙에 세팅했고 밴드에도 다이아몬드를 페이브드 세팅했다. 문의 1566-7277



2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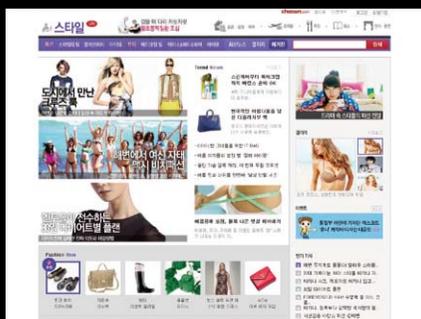
- 10 **INSIGHT**
- 12 **SELECTION**
- 16 **CELEBRATION THE LONDON 2012 FESTIVAL** 7월 27일부터 열리는 런던올림픽을 위해 영국의 대표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했다.
- 18 **RICK OWENS** 파과적 혁신이 연상되는 강렬한 디자인 언어로 열혈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리크 오웬스.
- 20 **TRY BRIGHTS** 눈을 매혹하는 선명한 컬러를 입히고 화려한 보석을 세팅한 주얼리 워치 컬렉션.
- 21 **MARK ON HISTORY** 모든 순간의 관찰자이자 기록자이자 증거. 오메가와 올림픽의 인연은 이번 런던올림픽에서도 계속된다.
- 22 **THE BRILLIANT LEGACY** 지난 5월, 도쿄에서는 올해로 창립 1백 75주년을 맞은 티파니의 셀러브레이션 행사가 개최되었다.
- 23 **MORNING DEW** 다이아몬드 주얼리로 명성이 높은 주얼리 브랜드 골든듀가 시그니처 아이템인 '모닝듀 클래식'을 선보인다.
- 24 **LOVE STORY**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오랜 기다림과 설레는 사랑 그 자체를 상징하는 모든 여자들의 바람, 프라포즈 링.
- 25 **CONTEMPORARY CHIC** 스와로브스카가 7월 22일 스완 데이를 맞아 출시하는 나우 펜던트와 2012 F/W 컬렉션.
- 26 **BIG SHOPPER** 넉넉한 빅 쇼퍼백(shopper bag)이 돌아왔다.
- 27 **HANDMADE LUXURY** 장인들의 솜씨와 정성이 정교하게 엮인 이탈리아의 수제 브랜드 헨리베글린의 브랜드 스토리.
- 28 **SCENT CONTROL** 무더운 여름 날씨의 끈끈함과 불쾌 지수를 한 단계 낮춰줄, 얼음 같은 청량감이 느껴지는 남성 향수들.
- 29 **AFTER A BOY** 꽃미남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내고 이제 막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배우 이민기의 스타일리시한 서머 룩.
- 36 **2012 S/S SWIMWEAR KEYWORD** 모래알이 반짝이는 드넓은 해변과 푸른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 수영복을 준비해야 할 때다.
- 37 **THE INSTANT GET** 뷰티 파우치를 꾸리기 전, 꼭 필요한 팁.
- 38 **프리미엄 올 인클루시브 휴가, 클럽메드 ALL INCLUSIVE HOLIDAY** '휴가에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됐다'는 클럽메드의 '프리미엄 올 인클루시브' 휴가.
- 40 **DARK REVELATION** 진한 어둠 속에서 생생한 미네랄의 향기가 느껴지는 돔 페리뇽 2003 빈티지를 즐기는 특별한 방법.
- 42 **골든 트라이앵글에서의 럭셔리 글램핑 EXOTIC HIDEAWAY** 차양라이의 럭셔리한 포시즌스 리조트 텐트드 캠프. 아시아의 그 어느 곳보다 더 미국적일 수 있을까.
- 44 **포도주 명가 뤼르통가의 부티크 호텔 LA MAISON BORD'EAUX**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이는 보르도에서 모던한 인락함과 맛있는 뤼르통 포도주를 즐길 수 있는 부티크 호텔을 만나보자.
- 46 **SHOWER TIME** 촉촉한 수분력은 기본, 상쾌한 향과 신뜻한 텍스처를 겸비한 샤워 제품이 필요한 순간이다.

Style 조선일보

Issue. 77 July 2012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kym@style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 배미진 jin@stylechosun.com 권유진 yjkwon@stylechosun.com
 이예진 yejin@styl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style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stylechosun.com
 김준석 adjoons@stylechosun.com 조통일 ct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stylechosun.com 분해·제판 | ING PROCESS 인쇄 | 타라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퍼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이메일 문의 style@stylechosun.com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등부이촌동, 평창동, 상복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첫째 주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인 첫째 주 화요일에 배달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Jewel THE WHITES

간결한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깔끔하고 심플한 화이트 골드 컬렉션.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심플한 원형을 따라 브랜디 이니셜이 새겨진 불가리 네크리스 4백만원대 불가리, 클로버 모티브의 심플한 네크리스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하트 펜던트 안의 다이아몬드가 움직임에 따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베리 쇼파드 네크리스 4백만원대 쇼파드, 떨어지는 유성에서 영감을 받은, 2개의 별이 아름다운 꼬메드 링 1천7백30만원 사넬 화인 주얼리, 화이트 골드에 아코야 진주를 마치 나사에 끼운 듯 세팅했다. 2백70만원대 타사키, 스네이크에서 영감을 받은 뿔뿔 브레이슬릿, 표면의 텍스처를 독특하게 세공했다. 3천만원대 부쉐론, 못에서 영감을 받은 대담한 디자인의 저스트 앵 글루 브레이슬릿 8백60만원대 가르띠에, 에디터 배미진



홍영림 디자인 스튜디오

Fashion SUMMER TIE

단조로운 서머 비즈니스 룩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화사한 컬러와 다채로운 프린트의 타이를 선택하라.



(왼쪽부터 차례대로) 윗트 있는 드래건 패턴의 핑크빛 타이 20만원대 런던 켈들맨 by 알프레드 던힐, 화이트 패턴과 네이비 컬러의 대박가 시원한 느낌을 주는 타이와 광택이 도는 격자무늬의 주황색 타이 각각 10만원대 카운테스 마라, 화사한 꽃무늬를 수놓은 연보랏빛 타이 11만원대 나나리치, 사선 스트라이프가 스마트한 느낌을 주는 시원한 블루 컬러 타이 19만원 폴 스미스, 에디터 이예진

구두는 살비토레 페라기오.



Beauty HAPPY F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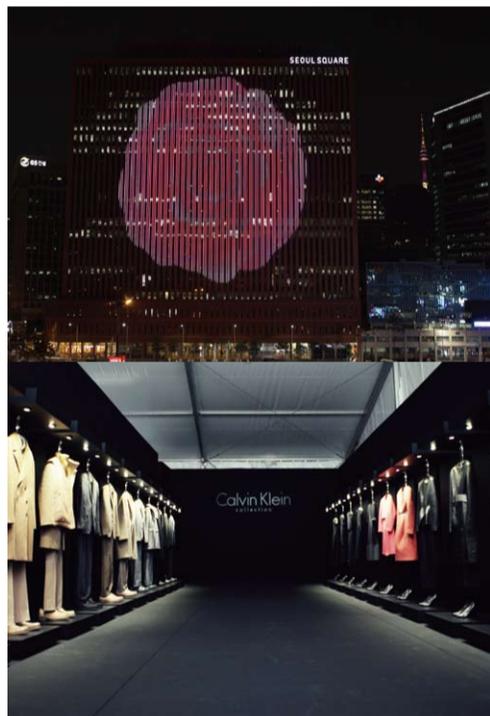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가는 발의 각질과 굳은살은 구두를 신는 여자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고민거리. 색사하고 아질한 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친 발은 당신의 완벽한 룩에 '옥의 티'나 다름없다. 매번 전문가에게 발 관리를 받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 홈 케어법에 주목할 것. 얼굴과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발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각질 제거가 필수. **가미르드 엑스폴리에이팅 풋 젤 by 온뜨레**는 시원한 쿨링감의 오가닉 풋 스크럽 젤로 살구 씨 파우더가 거칠게 일어난 발의 굳은살을 정리하고 멘톨, 티트리 오일이 향균·소독 작용을 해 발을 청결하게 가꿔준다(100g 2만2천원). 각질 제거제로도 쉽게 제거되지 않는 굳은살엔 풋 버퍼를 사용해볼 것. 따뜻한 물에 발을 충분히 불린 후 **F3 메탈 켈로스 리무버 버퍼**로 발뒤꿈치와 발바닥의 각질을 위아래, 좌우로 문질러보자. 자극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굳은 각질을 제거할 수 있다(6천9백원). 각질 제거가 끝났다면 발 전용 보습 크림으로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도록. **버츠비 페퍼먼트 풋 로션**은 페퍼먼트 오일과 멘톨 성분을 함유해 피곤한 발에 활력을 주고 부종을 없애준다. 보습력이 뛰어난 보타니컬 오일과 비타민 E 성분이 건조한 발을 부드럽게 가꿔준다(100ml 3만원). 일주일에 1~2회 신고 자는 것만으로 촉촉한 발을 가꿀 수 있는 **블리스 소프트닝 삭스**는 집중적인 트리트먼트 효과를 원하거나, 마사지 관리가 번거로운 귀차니스트들에게 제격. 피부에 풍부한 보습력을 더하고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올리브 오일과 호호바 오일, 향산화 성분을 함유한 포도 씨 오일 등을 담아 뒤꿈치와 발바닥, 발톱을 부드럽게 케어한다(8만2천원). 발에 땀이 많아 불편한 냄새가 난다면 **켄조 퍼퓸 로베켄조 프레시 데오드란트 내추럴 스프레이**를 추천한다. 민트와 로투스 플라워 성분이 쿨링감을 주고 땀을 흡수해 보습보송하고 부드러운 발을 유지할 수 있다(150ml 3만7천원). **러쉬 티 포 토츠** 역시 땀을 흡수해 불편한 냄새를 제거하고 보송한 느낌을 유지하는 발 전용 파우더. 티트리, 속새 허브, 라임 성분이 청량한 발을 가꾸는 데 도움을 준다(100g 2만1천원). 에디터 권유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특별한 하룻밤, 캘빈 클라인과 뉴 뮤지엄의 조우

패션 브랜드와 뉴욕 최대 뮤지엄이 만나면 어떤 모습의 '작품'이 탄생할까. 지난 5월 24일 캘빈 클라인은 뉴욕 뉴 뮤지엄과 함께 아트와 패션, 문화가 접목된 멀티 브랜드 행사를 서울역에서 개최했다. 뉴 뮤지엄의 초대 큐레이터인 로렌 코넬(Lauren Cornell)이 큐레이팅을 담당한 이번 행사는 '무한 고리'라는 타이틀 아래, 1960년대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인 고(故) 백남준에게 헌정하는 의미에서 현대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국제적인 아티스트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점에 눈에 띈다. 서울역 옥상 주차장이라는 독특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제작한 3D 디지털 장치가 전시되었고, 이 작품들을 배경으로 모던 룩의 대표 주자인 캘빈 클라인의 전 라인이 조화를 이루면서 예술, 문화 속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녹여냈다. 서울역 반대편, 서울 스퀘어에 설치된 세계 최대 LED 스크린에는 서울 가나아트 갤러리와 협업 아래 별도로 큐레이팅한 비디오 아트가 디스플레이되었다. 이 영상들은 백남준의 미래 지향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비전을 비디오 콜라주로 제작했으며, 이듬다음과 진부함, 친밀함과 분열감, 사회의 재구성 가능성과 해체를 표현했다. 23층 높이의 서울 스퀘어 미디어 캔버스에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서울역을 지나가는 대중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처럼 패션은 더 이상 매장 쇼윈도에서 당신을 기다리지 않는다. 캘빈 클라인과 뉴욕 뉴 뮤지엄의 특별한 조우와 같이 패션은 예술과 라이프스타일에 깊이 파고들어 소비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하나의 놀이이자 문화로 다가오니 말이다. 에디터 권유진



Book Finn Juhl - (핀 울 탄생 100주년展 - 북유럽 가구 이야기) 도록

스칸디나비아 가구의 가장인 핀 울(Finn Juhl, 1912~1989)에 대한 서적(Finn Juhl)이 선보였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림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구 전시회(핀 울 탄생 100주년展 - 북유럽 가구 이야기)의 도록으로 핀 울의 디자인 세계를 국내 최초로 소개한 책일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전반에 대해서도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자료의 보고다. 덴마크 출신인 핀 울은 대량생산 방식으로 유명해진 동시대 디자이너들과 달리 자신이 사용할 가구를 직접 디자인함으로써 혁신을 꾀하고 북유럽 가구 스타일을 전파시킨 주인공으로 특히 전설적인 'No. 45'와 덴마크 국왕 프레데리크 9세가 없었던 '차프테인' 등 걸작을 선보인 '의자의 달인'이다. 세계적인 의자 수집가이자 이번 핀 울 전시회에 컬렉션을 제공한 일본의 오다 노리쓰구 교수가 집필했다. 오는 9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초로 매달 전시의 구성에 변화를 줌으로써 5개월 동안 다섯 번 변하는 역동적인 전시 공간의 미학을 추구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커펠트는 핀 울 도록에 대해 '세대가 인정한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평하기도 했다. 가격 2만5천원. 문의 02-720-0667 에디터 고성연



브랜드의 시그니처 패턴과 소가죽 핸들이 돋보이는 가방 2백80만원 고야드.



코임 가족 테로 포인트를 준 보잉 선글라스 8만원 토즈.



캐주얼한 소재에 제격인 메시 벨트 33만원 에르메네질도 제나.



다양한 컬러 배색과 스타드 장식이 화려한 샌들 78만원 파치오티.



이국적인 이자수 패턴의 남성 셔츠 83만원 돌체앤가바나.

for him Selection

무성한 야자수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액티브한 탐험과 여행을 즐기는 남성을 위한 이그조틱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do hyun*



화려한 플라워 프린트의 팬츠 1백20만원대 은리아 by 셀러브레이션.



세련된 카키 컬러 헤드셋 11만9천원 인케이스.



신선한 오렌지 컬러의 페도라 32만14천원 안토니오 팩트 by 셀러브레이션.



아티스틱한 터치가 느껴지는 우드 카드 케이스 1백만원 포세티 by 10 포로스 고모.



미지의 세계를 향한 모험가의 여행을 모티브로 제작한 오토매틱 무브먼트 그랜드 익스플로러 가격 미정 바쉐론 콘스탄틴.



앵무새 컵스 링크 23만원 폴 스미스.



라피아, 코르크 소재로 캐주얼한 느낌을 준 로퍼 1백만원대 버버리.



해물 장식이 평탄한 동전 지갑 경용 카드 지갑 25만원 알렉산더 맥퀸.



견고한 캔버스 소재와 가죽 트리밍, 스트랩이 조화로운 워크엔드 백, 58X28cm, 1백36만원 알프 로렌 블랙 라벨.

장착 유 튜브 크리크 에

- 돌체앤가바나 02-3444-0077
- 10 포로스 고모 02-3018-1010
- 에르메네질도 제나 02-511-0285
- 셀러브레이션 02-511-7125
- 폴 스미스 02-3447-0278
- 알프 로렌 블랙 라벨 02-545-8200
- 바쉐론 콘스탄틴 02-796-4510
- 알렉산더 맥퀸 02-6905-3793
- 고야드 02-3448-4778
- 파치오티 02-545-8757
- 토즈 02-3448-6008
- 인케이스 02-3442-1014
- 버버리 02-3485-6536

celebration the london 2012 Festival



올림픽은 운동선수만을 위한 축제일까?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는 런던올림픽을 위해 영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올림픽을 만들기 위한 아티스트 한정 작품들의 뜨거운 향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영국은 작지만 위대한 나라입니다. 셰익스피어, 처칠, 비틀스, 손 코네티, 해리 포터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팔과 왼팔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총리 역을 맡은 휴 그랜트의 대사가 요즘 다시 생각난다. 런던올림픽을 앞둔 영국은 가진 것이 많은 나라임이 확실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자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영국의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백분 발휘했다. 패션 디자이너, 건축가, 현대미술가 등 각계의 아티스트들이 모두가 갖고 싶어 할 작품들을 선보였다. 먼저 영국과는 다소 안 어울리는 듯 보이는, SF 고전 영화 속에서 빠져나온 듯한 특이한 모양의 건축물을 소개한다. 인도계 영국 미술가 애니시 카푸어(Anish Kapoor)와 건축가 세실 발몬드(Cecil Balmond)가 만든 이 특별한 조형물은 위에 올라가서 올림픽 파크와 런던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이 건축물의 이름은 아르셀로미탈 궤도(ArcelorMittal Orbit)로, 높이는 114.5m이며, 60% 이상의 재료가 재활용 철강으로 이루어졌다. 이 작품은 영국에서 가장 높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조형물이 되었으며 올림픽 스타디움과 아쿠아티크 센터 중간에 있다. 방문객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원한다면 4백55개의 철제 계단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조금 무섭기는 하겠지만 유명 현대미술가의 작품을 직접 밟아볼 수 있는 기회나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듯. 애니시 카푸어는 올 10월에 우리나라의 삼성 리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며,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에 있는 높이 10m, 무게 1백 톤의 스테인리스 작품 등으로 유명하다. 애니시 카푸어의 조형물 바로 옆에는 이라크 출신의 영국인으로 2004년 여성 건축가로서는 최초로 건축 최고 상인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지하 하디드(Zaha Hadid)가 디자인한 아쿠아티크 센터가 있다. 그녀는 우리나라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한 건축가이기도 하다. 아쿠아티크 센터에서는 다이빙, 수영, 수중 볼레, 근대 5종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부드러운 물결이 흐르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건축물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진다. 바로 이 아름다운 곳에서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에 도전한다.

현대미술 작품 소장의 기회
세계를 매혹시킨 영국의 현대미술가들도 올림픽 축제에 대거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높은 트레이시 에먼, 게리 흄,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마틴 그리드, 레이철 화이트리드 등 12명의 작가들이 자신만의 특색을 살려 올림픽과 패럴림픽 올림픽 공식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는 테이트 뮤지엄에서 무료로 전시되고 있으며 프린트를 직접 구입할 수도 있어 매력적이다. 저렴한 가격에 유명 미술가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레이철 화이트리드는 옐로·그린·레드·블루·블랙 컬러 등 올림픽 오륜기를 소재로 하여 마치 와인 잔이 남긴 자국과 같은 낭만적인 포스터를 선보였고, ‘무명의 달리는 이를 위하여(For the Unknown Runner)’라는 부제가 붙은 크리스 오필리의 포스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과 같은 존재가 맹렬하게 달리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하워드 호킨스는 ‘수영’이라는 포스터를 선보였는데 말 그대로 블루 컬러 물감을 마구 짓어놓은 모습이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현대미술가가 만든 포스터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안시아 해밀턴의 ‘다이빙’ 포스터는 수영장 안에 거꾸로 뛰어드는 다이빙 선수의 다리 위로 오름기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올림픽 공식 포스터를 구경하다 보니 12명 작가의 포스터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마음까지 든든해질 것 같은 욕심이 생긴다.

패션 디자이너 폴 스미스는 런던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7개의 우표를 디자인했다. 맨 섬(Isle of Man) 우체국이 기획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 폴 스미스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맨 섬은 폴 스미스의 친구이기도 한 올림픽 사이클리스트 영웅 마이크 캐번디시의 고향이며, 폴 스미스는 사이클링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이다. 마이크

캐번디시는 친구의 이러한 적극적 응원에 힘입어 이번 올림픽 사이클링 경기 중 가장 첫 번째 순서인 남자 로드 레이스(Road Race)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약 2백만 명의 열성 팬들이 비킹엄 공에서 시작되는 1백56마일의 레이스에서 응원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표는 보라색과 브라운이 조화를 이룬 사이클링 경기 디자인뿐 아니라 요트, 수영, 테니스, 조정, 육상, 양궁 등 7개 종목을 폴 스미스의 컬러풀한 색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맨 섬 우표는 지난 1월에 출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영국 선수들, 스텔라 매키트니를 만나
비틀스의 멤버, 폴 매키트니의 딸이자 패션 디자이너 스텔라 매키트니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영국 선수들이 착용할 유니폼 Team GB를 발표했다. 아디다스와 함께 자그마치 2년을 꼬박 투자한 이 프로젝트를 위해 그녀는 영국 국기 유니온 플래그(Union Flag)를 활용했다. 유니온 플래그는 영국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며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 “무엇보다 나는 운동선수들에게 그들이 올림픽에서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디자이너로서는 그들이 한 팀의 일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고 싶었지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도전은 스포츠 종목에 출전한 많은 선수들이 모두 한 팀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텔라 매키트니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선수들을 직접 인터뷰했고 그들은 유니폼을 입었을 때 자신이 멋져 보이고, 더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 그런 생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겨울 앞에서 멋지게 차려입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다. 스타일리시한 여성을 위해 디자인한 그녀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남녀노소의 선수를 위해 디자인해야 했고, 그것은 일종의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멋지게 성공했으며 외관상의 디자인뿐 아니라 운동 경기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아디다스의 첨단

기술력 또한 한몫을 해주었다. 경기장에서 영국 선수들이 멋져 보인다면 스텔라 매키트니의 노력을 떠올려보자. 미국에서는 디자이너 랄프 로렌이 디자인한 유니폼을 선보였다. 이탈리아 선수들은 조르조 아르마니와 미우치아 프라다가 디자인한 의상을 입는다. 이쯤 되면 올림픽이 아니라 런웨이라고 명명해도 될 것 같다.

영국의 자랑, 데이비드 베컴의 성화 봉송
영국의 자랑, 데이비드 베컴이 블랙 슈트를 멋지게 차려입고 성화 봉송에 나섰다. 그가 들고 있는 성화는 남섬 듀오 디자이너 에드워드 바버 & 제이 오스거비의 작품으로, 그들은 가구 브랜드 비트라와 컬레버 레이아웃에서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다. 80cm의 긴 막대기 모양 성화에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8천 개의 구멍을 뚫었는데, 성화 봉송에 참여하는 8천 명의 주자들을 의미한다. 금속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인데, 높이는 800mm, 무게는 800g이다. 8천 마일을 달려 런던올림픽 게임 개막식에 불을 붙이게 된다. 이 성화는 지난 4월 열린 런던 디자인 뮤지엄이 선정한 2012 올해의 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디자인계의 오스카 상으로 불리는 명망 높은 행사로, 건축 부문은 런던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호킨스 아티텍스가 차지했다(우리나라의 디자이너 김기현은 1.3 체어로 가구 부문에서 수상했다). 총 7개 부문에서 런던올림픽 관련 디자인 작품이 2개나 수상했다.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한 런던올림픽은 오는 7월 27일 시작된다. 그리고 보니 스포츠도 인간의 노력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이 아닌가. 화합과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인류 최대의 축제를 기다리며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미리 감상해볼 것을 권한다. 미술관이 아니라 올림픽 파크에서 감상한다는 것이 좀 색다르다. **IS**

글 이소영 (서울, 크루벨출판), (사진 미술에 중독되다)의 저자. 기획·편집한 책으로는 (배움준의 두 번째 책, 외관과 스타일) 등이 있다.



1 현대미술가 애니시 카푸어가 디자인한 올림픽 기념 조형물 아르셀로미탈 궤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미술 조형물이다. 올림픽 파크와 런던 전경이 내려다보는 최고의 전망대이기도 하다. 2 이라크 출신 영국 건축가 지하 하디드가 설계한 아쿠아티크 센터. 이곳에서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에 도전하게 된다. 3 현대미술가 레이철 화이트리드는 오륜기를 소재로 만든 올림픽 공식 포스터를 완성했다. 4 미술가 하워드 호킨스가 블루 컬러 물감으로 수영 종목의 역동성을 표현한 포스터 옆에 앉아 있다. 5 미술가 안시아 해밀턴의 시원한 포스터 ‘다이빙’.

Rick Owens

파괴적 혁신이 연상되는 강렬한 디자인 언어로 열혈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리크 오웬스. 'Minimalist Goth'라고 불리는 그의 진한 감성을 꿰뚫어 보면 절제된 미학이 돋보이는 구조적이면서도 유려한, 그만의 이지적이고 부드러운 스타일이 숨 쉬고 있다. 파리의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본 그의 양면적인 매력과 많이 닮았다. 이성과 기지가 번뜩이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업가의 면모와 건축과 음악을 사랑하는 예술 애호가의 모습을 동시에 간직한 그와 나눈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흥미진진했다.



을 듣고는 '워커홀릭'이냐고 묻자 "그런 편이지만 사실 한창때처럼 '노동'에 가까운 일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라며 걱정을 털어놨다. "지금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게 갖춰져 있고, 급격한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없도록 나름의 구도를 잡아놓고 있으니까요. 내 인생의 반이 재질을 하는 시기였다면, 그 뒤로는 쌓인 걸 발산하는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혹시 5년쯤 뒤엔 고갈될지도 모르지만 현재는 정원에서 가지치기를 하듯 아이디어를 정성 들여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는 왜 여전히 주로 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는 밤 9시까지 일을 할까? "아, 그건, 흔히 다른 디자이너들처럼 디자인 팀을 두고 있지 않아 항상 할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리크 오웬스 정도의 인지도와 사업 규모를 갖춘 브랜드를 이끌면서 전속 디자인 팀을 두지 않다니, 다소 의외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원치 않아요. 내 아이디어를 실현해줄 수 있는 이들을 필요로 할 뿐이지요." 그리고는 "아마도 난 '독재자'형일지도 몰라요"라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띄우며 사실 팀워크에 익숙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어릴 때부터 캘리포니아의 환상적인 기후를 누리며 자랐는데도 그 흔한 스포츠 팀에조차 몸담은 적이 없었다.

수줍고 어린 캘리포니아 시골 마을의 소년, 시련을 딛고 세상으로

격투기를 했다 해도 믿을 만한 체격인데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았다니, 놀라움의 연속이다. 하지만 그가 어린 시절 자신이 몹시 수줍고 민감하고 어린 소년이었으며 비만까지 겪어 포레 친구들로부터 놀림 당하기 일쑤였다고 얘기했을 땐 별로 충격적이지 않았다. 리크 오웬스에 게서 아픔과 고통을 딛고 일어난 아들에게 배어 있는 우수 어린 강함이 느껴지기 때문일까. 그 자신도 공공연히 "마음에 아픔이 있고, 부서진 사람들이 내(나 디자인)를 찾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는 그러한 시련을 겪은 시절을 배움의 시기였으며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흥미로운 점은 자신이 몹시 보잘것없게 여겨졌을지도 모르는 그 당시에도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난 항상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내적으로 자신감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보통 미국 청소년들처럼 부모님을 떠난 리크 오웬스는 LA에 자리 잡고 있던 동안 오티스 칼리지에서 수학했다. 그리고는 LA 트레이드 테크니컬 칼리지로 옮겨 패턴 메이킹을 익혔다. 그는 예술학도도 남기엔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갖대를 스스로에게 들이댔다고 말했다. 그리고 변화를 모색했다. "20대에 접어들면서 심신을 단련시키면서 내 인생을 지켜나가는 법을 점차 익히게 됐죠. 비단 나만의 경우라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든 부단히 노력하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을 변



1.경고 긴 생머리가 인상적인 리크 오웬스. 늘상 편한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다는 편이다. 2.공간이 있던 건물을 바탕으로 해 고장적인 느낌이 들썩 풍기는 프랑스 파리의 플레그십 스토어. 3.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아내 마셀 레이(왼쪽)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리크 오웬스. 4.미국 뉴욕 트라이베카에 자리 잡은 리크 오웬스 플레그십 스토어의 내부. 5.지난 5월 아시아 최후로 서울 호텔아트센터에서 열린 리크 오웬스 가구 전시회에 소개된 작품들. 창과 소파를 결합한 단순미 돋보이는 데이 베드와 기하학적 형태와 플 모양이 근사하게 어우러진 의자. 6.서울 도산공원 근처의 플레그십 스토어. 리크 오웬스의 실제 모습을 본듯 밀랍 인형이 분위기를 주도한다. 밀랍 인형 제작 기술로 유명한 런던 마담투스에서 제작한다는 그의 밀랍 인형은 세계 주요 도시의 각 매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터리어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7.영국 런던 사투에 위치한 플레그십 스토어는 모던함이 느껴지는 세련된 인터리어를 자랑한다. 8.9. 'Minimalist Goth'로 통하는 리크 오웬스의 개성 있는 디자인 언어가 물어는 2012 S/S(위), F/W 컬렉션(아래). 창대한 구조적 미를 바탕으로 드러나는 생생한 선과 동화적이고 따뜻한 감성의 그래픽 톤은 신비한 매력을 지닌 그의 스타일을 대표하는 요소들이다.



"아니, 리크 오웬스를 만났다고요? 갑소사, 그는 나의 신인데... 어땠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예요?" 덴마크에서 파리로 건너와 5년째 홍보 일을 하고 있는 맷 크리스텐슨. 그녀는 5월 초 샹젤리제 근처의 한 카페에서 늦은 점심을 같이 하던 중, 에디터가 컨텐퍼러리 디자이너 리크 오웬스를 만났다는 말을 꺼내자 갑자기 눈에서 강렬한 광채를 뿜어낼 정도로 흥분했다. 패션을 몹시 사랑한다는 말을 비롯해 수많은 파리지엔들이 우아하고 날카로운 커팅으로 유명한 그의 가족 재킷을 인생의 '머스트 해브' 품목으로 꼽을 만큼 리크 오웬스는 높은 인기를 누리 고 있지만, 같은 파리 하늘의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음에도 런웨이를 제외하면 대중이 그다지 자주 소식을 접할 수 없는, 상당히 신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8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건너온 이 독특한 미국 출신 디자이너의 근황과 뒷담화를 궁금해 하는 유럽인들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됐다. 글썽, 워낙 인간이란 너도나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말처럼 다면적인 성향이 강한 존재지만 그는 특하나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분명한 것은 놀라운 만큼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즐기고 상냥한 데다 꽤나 솔직 담백하게 느껴지는,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매우 논리적이었다. 하긴, 그의 논리 정연한 말솜씨가 다소 의외로 느껴지는 것 자체가 모순일지도 모르겠다. 미니멀리즘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의 의상이 표현해내는 직선과 곡선의 조화와 건축학적 패턴을 보면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신화에 나오는 전사의 후예를 연상케 하는 범상치 않은 용모 때문에 위압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면서도 말수가 극히 적은 아티스트 유형을 예상했던 게 아닐까.

섬세한 감성을 냉철한 이성으로 다스리는 크리에이터

물론 카리스마가 없을 리는 없다.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파리 7구에 자리 잡은 리크 오웬스의 스튜디오이자 자택. 고즈넉한 분위기의 넉넉한 공간에 검고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나타난 그는 파리, 도쿄, 서울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플레그십 스토어에 으레 버티고 있는, 그 자신을 형상화한 밀랍 인형의 모습처럼 강렬한 인상을 뿜어냈다. 용병이라 해도 무방할 듯한 건장한 체격과 '교박'처럼 자주 입고 다니는 검은 민소매 티셔츠 사이로 볼거져 나온 늘림한 팔뚝에 새겨진 커다란 문신. 단지 입가에 웃음을 띠고 있기에, 기운찬 목소리로 인사를 하기에 "아, 인형이 아니고 살아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낄 뿐, 사실 직접 만나본 이들이 많지 않기에 리크 오웬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존재한다. 매우 퇴폐적이란느니, 까다롭지만 실제로는 아기처럼 온순하다느니, 고소공포증이 있어 비행기를 자주 못 탄다느니(그는 아직 한 번도 비행한 적이 없다). "사실 일하느라 상당히 바쁘다"고 그는 말했다. "여행을 자주 하긴 하지만 알고 보면 출장을 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탈리아에는 생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자주 가죠. 그냥 여행만 하려면 오히려 긴장할지도 몰라요(웃음)." 헬스를 랍에 운동하러 가는 일과를 빼면 별다른 사교 생활도 없이 거의 일만 하는 그의 일상 스케줄

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반열에 오른 지금의 위치에서 그는 "솔직히 웃을 만드는 작업은 내게 예술처럼 느껴집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나를 스스로 아티스트라 부르진 않겠지만, 패션과 가구 디자인은 내 창의적 욕망을 충분히 충족시켜주고 있으니 그걸로 됐죠." 그가 패션과 예술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제 고향은 포터빌이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골 마을이에요. 어머니는 교사로 일하기 전까지 제 향상을 만드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자라났죠. 또 아버지는 예술 서적을 잔뜩 소장하고 계셨는데 그때 자연 색조를 머금은 한국과 일본의 도자기들도 접할 수 있었죠. 은근하고 우아하고 고요한 아름다움으로, 늘 평가를 만들고 그랬어요." 1년에 두 차례 이들의 런웨이 쇼를 관람하러 파리를 방문한다는 그의 양친은 아들이 패션 디자이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패션 디자인이라는 단어도 모르셨을 거예요. 포터빌에서는 대부분 '드레스 메이커'라는 표현을 썼지요. 그만큼 보수적인 곳이에요. 아버지는 (전위적인 사진이 가득 담긴) 책에 대해선 아예 언급도 하지 않으시죠(웃음)".

차곡차곡 쌓은 실력을 기반으로 세운 작은 패션 왕국

사실 기회가 땅 LA에서도 그는 무명 시절을 꽤 오래 겪었다. 여기저기 이름 없는 의류 상점에서 옷감을 자르는 일을 하면서 옷감 방향을 하기도 하던 그는 30대를 훌쩍 넘어서서 자신의 스튜디오를 내고 1994년 '릭 오웬스'라는 이름으로 데뷔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을 선택해줄 유통업체를 찾아다녔다. "그때 퇴짜를 놓은 대형 업체가 지금은 주요 바이어가 됐죠. 2001년부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현재까지도 든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 세일즈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었고, <보그>에서 런웨이 쇼를 후원받았죠." 2002년에는 명성 높은 CFDA의 뉴 탤런트 상까지 거머쥐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혹, 늦게야 스타덤에 올랐지만 오히려 그 뒤로 큰 굴곡을 겪지 않고 순탄한 행보를 계속했다. "이탈리아의 파르타가 세계 시장에 나가자고 제안해왔을 때 나는 이미 준비돼 있었죠. 내 스타일의 컬렉션이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대규모 투자 없이도 모든 게 자연스럽게 차근차근 성장했죠." 그는 현재 회사 지분의 80%를 소유하고 있는데 "파트너들은 상업적으로나 법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고 지원해주는 가족 같은 존재"라며 자신이 행운아임을 거듭 강조했다. "상업 라인조차도 눈치 안 보고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 이름(브랜드의 권리)을 사겠다는 투자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내 인생에서 정말 잘한 결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볼 때 또 하나의 영리한 결정은 유럽 무대로 진출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2003년 그는 프랑스의 모피 브랜드 헤비용(Reyvillon)의 아트 디렉터로 부임하면서 파리로 이주했다. 하지만 헤비용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그때 나는 이미 특별히 누군가를 필요로 하진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도 기반을 다진 상태였죠. 그냥 이쁘노부의 자취가 남아 있는 퍼 라인(fur line)에 매혹된 것이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인인 니를 프

랑스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이러한 영향에서인지 4개로 나눠지는 그의 컬렉션에도 퍼 중심인 '훈(Hun, 기존의 팔레 로얄에서 바뀐 이름)'이 있다. 로마제국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세웠던 고대 가마 민족 훈족에서 이름을 따온 퍼 라인인 리크의 배우자인 미셸 레미가 전적으로 맡고 있다.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인 프랑스인 아내

릭 오웬스 하면 연상의 아내와의 사랑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프랑스인으로 일찍이 미국에 건너간 미셸은 LA에서 문화계 인사들이 많이 모이는 유명한 레스토랑인 레 두 카페(Les Deux Cafes)를 운영하고 있었다. 처음에 둘은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5년 전쯤 결혼했다. 리크는 아내를 '더 나은 나의 반쪽(better half)'이라고 표현한다. "그녀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한 모든 것을 지니고 있어요. 전 차분하고 조용하고 논리적인 데 반해 미셸은 감성적이고 즉흥적이죠. 그리고 마법에 가까운 만큼 놀라운 '킬러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채워줍니다." 뮤즈로서, 조력자로서 미셸의 역할은 지난 4월 서울 신사동에서 열린 아시아 최초의 리크 오웬스 가구 컬렉션 전시회에서도 부각됐다. 무스(moose) 뿔의 곡선과 나무의 직선이 이루는 조화적 근사한 기하학적 형태의 의자, 침대와 소파가 우아하게 결합된 데이 베드, 핑크를 동굴등굴한 매듭처럼 내려뜨린 커튼... 그가 8년 전 파리로 이주하면서 자택을 꾸미기 위해 시작한 가구 디자인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 미셸이 톡톡히 기여했다고. 그리고 보면 프랑스 여인들이 리크 오웬스의 인생에 미친 영향은 막강하다. 그가 패션 디자인을 동경하게 된 강력한 계기를 제공한 인물로 꼽는 마들렌 비오네(20세기 초 코르셋으로부터 해방을 주도하는 등 여성복을 근대화하는 데 공헌한 디자이너)도 프랑스 출신이 아니던가.

오페라 <살로메>와 벨벳 언더그라운드를 사랑하는 묘한 매력의 소유자

그의 또 다른 뮤즈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는 기운이 없거나 신선한 영감이 필요할 때면 오페라나 건축물을 감상한다는데, 가장 아끼는 오페라로 19세기 말 데카당스 예술을 주도했던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살로메>를 꼽았다. 비극적 여주인공을 둘러싼 관능성과 과기적인 미를 시적으로 표현한 글과 환상적 선율. 그와 그의 패션 세계와 참으로 잘 어울리는 취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언젠가 미국 록 밴드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보컬 루리드의 음악을 자신이 디자인하는 방식에 비유한 인터뷰 대목이 떠올랐다. "아, 루리드, 물론 좋아하지요. 신기하게도 우린 친구가 되었고, 그가 파리에 오면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루가 내가 그런 말을 할 걸 아는지, 어떤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앞에서는 한 번도 그 얘기를 꺼낸 적이 없거든요." 겸연쩍은 표정으로 삼긋 웃는 그의 입가에 캘리포니아 시골 출신 소년의 수줍음과 상냥함이 물어 나왔다. **IS** 에디터 고성연(한지 취재)

Try brights

강렬한 색채는 하이주얼리 위치의 강렬함을 완성하는 마지막 터치다.
 눈을 매혹하는 선명한 컬러를 입히고 화려한 보석을 세팅한 주얼리 위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윙클로 투티 프루티 애플 이탈리아어로 '모든 과일을 의미하는 투티 프루티(Tutti-Frutti) 컬렉션. 화이트 다이얼에 과감하게 바게트 컷의 그린 컬러 가닛 48개를 세팅한 화려한 컬러 워치다. 라버 스트랩에 그린 컬러 악어 가죽 스트랩을 붙여 기존의 악어 가죽 밴드보다 10배 이상 내구성을 높였다. 5천만원대, 문의 02-2118-6208

까르띠에 에니멀 서커스 워치 2012년 고급시계박람회(SHH)에서 새롭게 선보인 에니멀 서커스 드 까르띠에 컬렉션 중 꿀벌에서 영감을 받은 워치. 에니멜 페인팅 기법과 인체적인 시팅을 조합해 특별한 위치를 완성했다. 옐로 골드에 7백5개의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25개의 옐로 다이아몬드, 0.1캐럿의 에메랄드를 세팅했다. 전 세계적으로 단 1백50개만 생산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가격 미정, 문의 1577-7277

쇼파드 하이 주얼리 워치 실루엣은 스커터 형태로 심플하지만 핑크 컬러를 메인 모티브로 해 여성성과 화려함을 동시에 표현한 워치다. 96개의 핑크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에 컬러풀한 스트랩을 매치해 시종스럽게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90

부쉐론 크레이지 하티 워치 인도 코끼리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한 화려한 워치. 핑크 골드와 옐로와 핑크 사파이어를 세팅했다. 워치 어워드인 오스카라 불리는 제네바 워치 그랑프리(Grand Prix d'Horlogerie de

Geneve)에서 2011년 수상한 바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2-543-6523

반클리프 아펠 참 컬렉션 베젤을 따라 3줄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360도 회전하는 참 장식을 더한 반클리프 아펠의 시그니처 워치인 참 컬렉션 워치다. 선명한 화이트 컬러가 화려한 색상 속에서 우아하게 돋보인다. 3천만원대, 문의 02-3440-5660

반클리프 아펠 타일러스 우아한 오벌 세이프 케이스에 블루 컬러 다이얼을 매치했다. 다이얼에 새겨진 섬세한 기묘세 문양과 베젤과 크라운에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클래식하다. 5천만원대, 문의 02-3440-5660

해리 윈스턴 오션 레이디 문페이즈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독특한 문자판 디자인의 워치. 수직입으로 세팅한 자개 위에 1백95개의 다이아몬드와 문페이즈를 세팅해 우아하면서도 환상적인 무드를 완성했다. 베젤을 따라 57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핑크 컬러 악어 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전체적으로 화려한 느낌이다. 5천4백만원대, 문의 02-540-1356

불가리 세르펜티 주얼리 워치 불가리의 대표 아이콘인 세르펜티 컬렉션에서 2012년 새롭게 선보이는 디자인인 세르펜티 주얼리 워치. 풍요, 지혜, 불멸을 상징하는 뱀에서 영감을 받은 워치로 뱀 머리 부분에 워치 다이얼을 세팅했다. 블랙 에니멜 처리한 보드에 다이아몬드와 골드 패턴을 입혀 독특한 분위기를 풍긴다. 가격 미정, 문의 02-2056-0172 에디터 **배미진**



mark on History

올림픽과 함께한 오메가는 모든 순간의 관찰자이자 기록자이자 증거가 되었다. 지금까지 25번의 올림픽과 함께한 오메가는 2012년 런던에서도 새로운 타임키퍼 기술을 소개한다. 오메가와 올림픽의 혁명적인 인연은 런던올림픽에서도 계속된다.

오메가 타임키퍼 하이라이프

1932 1932년 오메가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공식 타임키퍼 역할을 수행했다. 보스텔 천문대에서 정확한 크로노미터로 인증받은 30개의 정밀 크로노그래프를 제공한 것. 당시 공식 기록은 최초로 1/5초, 1/10초 단위까지 기록됐다.



1948 오메가는 생 모리츠에서 열린 1948년 동계 올림픽에서 최초로 광전지 눈(Cellular Photoelectric Eye)을 사용했다. 이렇듯 가능하고 전기 시설과 별도로 작동 가능했을 뿐 아니라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온도 변화에도 견딜 수 있었다.



1949 레이스트 오메가 타이머(Racend Omega Timer)가 등장했다. 이때부터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선수의 이미지 아래에 1/100초 단위의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해졌고, 1952년 올림픽에서 포토피니시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1961 오메가스코프(Omagascope) 덕분에 스포츠 경기 중계에서 실시간(real time)으로 화면 아래에 기록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수백만 명의 TV 시청자 앞에 기록이 그대로 공개됐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사라졌다.



2000 2000년에는 www.omegagating.com에서 오메가의 라이브 타이밍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수영 선수가 패드를 만진 후 15초가 채 지나지 않아 기록과 순위, 신기록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확인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메가의 25번째 올림픽, 런던올림픽

2012 런던올림픽은 오메가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오메가가 공식 타임키퍼로서 25번째 참가하는 올림픽이자, 2012년이 올림픽 타임키퍼가 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또 1948년 오메가가 광전지, 육상 선수를 위한 스타팅 블록, 슬릿 포토피니시 카메라 등을 최초로 소개하며 현대 스포츠 타임키퍼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도시인 런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깊은 관계 덕분에 타임키퍼와 자료 처리 기술이 한 단계 진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메가는 최근에 2020년 올림픽까지 계약을 연장했는데, 타임키퍼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훌륭히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런던올림픽을 위해 오메가는 4백50명 이상의 전문 타임키퍼와 데이터 관리자, 4백 톤에 육박하는 장비, 그리고 현장에서 채용해 훈련한 자원봉사자들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또 올림픽을 개최할 때마다 오메가 역시 새로운 타임키퍼 기술을 선보였는데,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소개할 새로운 타임키퍼 기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1백만 분의 1초를 측정할 수 있는 퀀텀 타이머다. 과거 장비에 비해 시간을 1백 배 더 세밀히 나누어 측정할 수 있으며 1천만 초에 단 1초의 오차밖에 허용하지 않는다. 또 업그레이드된 육상 스타팅 블록도 소개할 예정인데 선수들의 반응 속도를 백 블록(back block)에 닿는 힘을 측정해 계산할 수 있는 것. 센트럴 바는 과거보다 더욱 얇아졌다. 이는 여성 선수나 어린 선수들을 배려한 결과다. 이 밖에도 수영 경기에서 3등까지 선수를 알려주는 스위밍 쇼라이트 시스템, 수영 마라톤 경기에서 중간 지점을 표시해주는 오픈 워터 게이트 시스템도 새롭게 선보인다.

런던올림픽을 위한 새로운 컬렉션 워치

오메가는 2012 런던올림픽을 기념하는 두 가지 컬렉션을 선보인다. 먼저 오메가의 베스트셀러인 씨마스터 1948 컬렉션은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뒷면에 옐로 골드 런던올림픽 로고를 양각했다. 1948년은 런던올림픽이 처음 열린 해이며 씨마스터 라인이 탄생한 해이기도 하다. 오메가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코-엑시얼 2202를 탑재했으며 전 세계 1천9백48개만 한정 생산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또 하나의 런던올림픽 에디션은 씨마스터 아쿠아테라 크로노그래프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44mm에 달하는 볼드한 딥 블루 컬러의 다이얼을 매치했다.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오메가 코-엑시얼 3313을 탑재했고 다이얼 크기가 34mm인 여성용 버전도 출시된다.

올림픽 TV 광고 캠페인과 오메가 하우스

오메가는 브랜드가 함께한 다양한 올림픽 역사와 올림픽의 위대한 순간

을 기념하는 광고 캠페인 스타트 미 업(Start Me Up)을 선보이는데 영국 7중 경기 선수인 선수 제시카 에니스, 미국 단거리 선수 타이슨 게이, 남아프리카수영 선수 채드 르클로스 외 여러 선수가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오메가 올림픽 홍보 대사로 선수들의 일상생활과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들을 담고 있다.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은 롤링 스톤스의 음악을 사운드 트랙으로 사용해 더욱 드라마틱한 영상을 완성했다. TV 캠페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메가 홈페이지(www.omegawatches.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에디터 배미진



1 2012 런던올림픽 컬렉션 씨마스터 아쿠아테라 크로노그래프. 2 2012 런던올림픽 컬렉션 씨마스터 1948. 3 트라팔가 광장에 설치된 오메가의 올림픽 카운트다운 시계. 4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퀀텀 타이머. 5 업그레이드된 육상 스타팅 블록. 오메가의 이러한 올림픽 신기술과 히스토리, TV 캠페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메가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www.facebook.com/omega <http://twitter.com/omegawatches> <http://youtube.com/omega>



the brilliant Legacy

1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창립 1백75주년을 맞아 새롭게 세팅되었다. 2 1848년 당시 찰스 루이스 티파니는 프랑스 왕실과 귀족들의 주얼리를 사들여 다이아몬드의 왕으로 불렸다. 3 지난 5월, 하늘과 건물에 티파니 블루로 물들었던 도쿄의 1백75주년 기념 행사장 전경. 4 1950년대, 잔 슬럼버제가 디자인한 티파니 다이아몬드 리본 로제트 네크리스. 오드리 헵번이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홍보 포스터 촬영을 위해 착용했다. 5 1837년 찰스 루이스 티파니가 설립한 티파니. 6 잔 슬럼버제의 플뢰르 드 얼(Fleur de Mer) 브로치를 사랑한 엘리자베스 테일러. 7 황홀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1백28.54캐럿의 옐로 다이아몬드, 티파니 다이아몬드.

지난 5월, 도쿄에서는 하늘이 온통 티파니 블루로 탈바꿈한 화려한 축제가 열렸다. 바로 올해로 창립 1백75주년을 맞은 티파니의 셀러브레이션 행사가 개최된 것.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눈부신 팬시 옐로 다이아몬드이자 티파니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1백28.54캐럿의 티파니 다이아몬드가 새로운 모습으로 공개되는 것이었다. 더불어 오랜 세월 동안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의 권위를 이어가고 있는 티파니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브 주얼리 전시를 통해 그 명성을 다시 한 번 경험케 했다.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전설의 '티파니 다이아몬드'

'티파니 다이아몬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1877년, 남아프리카의 킴벌리 광산에서 2백87.42캐럿의 원석으로 채굴되었다. 이를 이듬해 티파니의 창립자 찰스 루이스 티파니(Charles Lewis Tiffany)가 약 1만8천달러에 매입했다. 이를 계기로 그는 '다이아몬드의 왕'으로 명성을 굳히게 되었고, 티파니는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권위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옐로 다이아몬드 원석은 프랑스 파리로 가 티파니의 수석 보석학자인 조지 프레데릭 쿤츠(George Frederick Kunz)의 감독하에, 그 당시 전통이었던 58면 브릴리언트 컷보다 24면이나 많은 82면으로 연마한 브릴리언트 쿤스 모양의 1백28.54캐럿의 다이아몬드로 탄생되었다. 이 원석의 크기는 가로 1인치, 세로 7/8인치로 마치 안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강렬한 광채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절반 이상의 많은 손실을 감수하고 탄생한 티파니 다이아몬드를 계기로 크기보다는 눈부신 빛을 극대화하기 위한 커팅을 중시하는 티파니의 다이아몬드에 대한 기준이 탄생되었다. 창립 1백75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선보이는 티파니 다이아몬드의 디자인은 티파니의 역사성과 혁신을 담아야 한다는 사명 아래 오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었다. 티파니 주얼리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노력을 이 네크리스에 고스란히 담았다. 숙련된 장인들이 모든 다이아몬드를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게 커팅했으며 각각의 다이아몬드들은 네크리스의 움직임에 따라 최고의 광채를 낼 수 있도록 모던하면서도 부드러운 디자인으로 세팅되었다. 1년 여의 기간에 걸쳐 제작된 네크리스(네크라인) 부분은 총 1백20캐럿이 넘는 20개의 루시다 다이아몬드와 5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자아낸다. 또 티파니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메인 부분에는 4백81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섬세하게 세팅되어 마치 햇빛이 비치듯 화려하게 디자인되었다.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티파니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잔 슬럼버제(Jean Schlumberger)의 두 가지 오리지널 디자인을 포함해 이번이 네 번째 세팅이다. 이를 실제로 착용해본 사람은 지금까지 단 2명밖에 없다. 마리 화이트 하우스(Mary Whitehouse) 부인이 1957년 로드아일랜드 뉴포트에서 열린 티파니 무도회를 위해 티파니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네크리스를 착용했으며 1961년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홍보 포스터 촬영을 위해 오드리 헵번이 티파니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잔 슬럼버제의 리본 로제트 네크리스를 착용했다. 이후 1995년,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파리 장식예술미술관에서 열린 디자이너 회고전에서 다시 잔 슬럼버제가 디자인한 '바위 위에 앉은 새(Bird on a Rock)'에 세팅되었다. 이어 2012년, 경이로운 정도의 아름다움을 지닌 네크리스가 바로 네 번째 주인공이 된 것이다. 티파니의 부사장, 존 킹(John King)은 "티파니 다이아몬드를 새롭게 세팅한다는 것은 미래와 디자인 혁신에 대한 티파니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또 이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석이자 다이아몬드에 대한 티파니의 기준을 확립한 창립자 찰스 루이스 티파니의 비전을 명예롭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새롭게 세팅된 이 전설의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2012년 도쿄를 시작으로 베이징과 두바이의 티파니 창립 1백75주년 기념 순회 전시를 마친 이후 1837년 티파니가 설립된 뉴욕 5번가 티파니 플래그십 스토어로 돌아갈 예정이다.

1백75년의 역사를 지켜온 티파니의 전설적인 아카이브 주얼리

1837년 찰스 루이스 티파니가 설립한 이후, 올해까지 1백75년을 이어온 티파니의 바탕에는 최상의 원석, 최고의 디자인 그리고 최고의 장인 정신이 있다. 긴 시간 동안 미국의 역사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해오며 패션 주얼리에서부터 하이주얼리에 이르기까지 티파니의 주얼리는 항상 찬사를 받아왔다. 특히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티파니의 아카이브 주얼리는 미국의 역사를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시대 경제나 문화를 상징한다. 1860년대에는 미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뉴욕을 포함한 파리, 런던에서도 하이주얼리를 보유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하이주얼리 브랜드로 입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 공개된 아카이브는 크게 6개의 테마로 총 73피스의 아카이브가 소개되었다. 미국 역사를 반영한 주얼리(An American Jeweler),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주얼리(Tiffany Nature), 티파니 다이아몬드 주얼리(Tiffany Diamond Heritage), 1940년대 글래머러스한 주얼리(1940s Glamour), 티파니와 함께한 셀러브리티(Celebrity) 그리고 일본풍의 주얼리(Tiffany Japan Style)로 이루어져 보는 이들을 매혹시켰다.



morning Dew

다이아몬드는 로맨틱한 순간을 꿈꾸는 모든 여성들의 로망. 주얼리 박스를 열었을 때 밀려오는 감동과 영롱한 다이아몬드의 빛은 가히 압도적이다. 하이 퀄리티의 다이아몬드 주얼리로 명성이 높은 주얼리 브랜드 골든듀가 브랜드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모닝듀 클래식'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인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골든듀의 23년 전통을 담은 모닝듀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를 사로잡기 위한 예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그중 가장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주얼리는 브랜드, 퀄리티, 디자인, 실용성 등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된다. 프러포즈, 결혼식 예물로 많이 선택되는 골든듀는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 클래식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국내 예물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은, 국내 대표 주얼리 전문 브랜드다. 하이 퀄리티의 다이아몬드만을 사용하고,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 품격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젊은 예비 부부들은 물론 상류층과 정·재계 인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골든듀는 40년 역사의 수집용 화폐, 기념주화 판매 회사를 모태로 하는 화동양행이 1989년 론칭한 국내 최초의 주얼리 브랜드. 정확한 다이아몬드 등급제와 가격 정책제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했으며, 비실용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심플 & 모던을 디자인의 모토로 삼으며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보석의 가치를 높이는 주얼리들을 선보이고 있다. 18K 골드, G/SI1 이상의 엄격한 등급 심사를 거친 다이아몬드를 사용하고 커팅, 색상, 중량 등 모든 면에서 8명 이상의 국제 공인 감정사의 감정을 거치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해 해외 주얼리 브랜드 못지않은 하이 퀄리티의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 이런 제품을 완벽한 서비스와 함께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매력적이다. 골든듀의 아이템들 중 시그니처 아이템을 꼽으라면 단연 모닝듀 클래식이다. 올해로 출시 10주년을 맞은 모닝듀는 2002년 탄생한 제품으로, 지금까지 7만 개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운 베스트셀러 아이템. 아침 이슬을 연상케 하는 우아한 곡선과 다이아몬드로 영롱하게 빛나는 순간을 표현한 모닝듀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모던 주얼리다. 심플하지만 존재감이 느껴지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데일리 주얼리로도 손색이 없고 투명하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와 조화를 이뤄 프러포즈 네크리스로도 인기가

모닝듀의 새로운 도약

10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모닝듀가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모습으로 선보인다. 화사한 다이아몬드 디테일로 로맨틱한 느낌을 주는 '모닝듀 로망스', 이슬방울의 곡선을 심플하게 형상화한 '모닝듀 뉴 웨이브', 뉴 웨이브 제품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모닝듀 모던 웨이브', 화려하는 듯한 입체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모닝듀 플라멩고', 이슬방울이 여성의 새골 라인을 따라 흐르듯 디자인해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모닝듀 플라멩고 하이주얼리'가 바로 그 주인공. 특히 모닝듀 모던 웨이브는 그동안 골든듀에서 볼 수 없었던 대담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화려하면서 모던한 스타일을 즐기는 여성들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또 모닝듀 플라멩고 하이주얼리는 섬세하게 세공한 수많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드라마틱한 화려함을 더하고, 여성의 목선과 새골 라인에 맞춰 입체적으로 제작한 디자인으로 브랜드의 위상을 높였다. 영롱한 아침 이슬을 형상화한 모닝듀는 이 다섯 가지 컬렉션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대표 주얼리가 될 모든 준비를 마친 셈. 더욱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모닝듀 컬렉션은 7월부터 전국 골든듀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15-5713 에디터 권유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침 이슬과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을 표현한 모닝듀 클래식 57만원부터, 플라멩고 춤을 연상케 하는 유려한 곡선 디테일이 돋보이는 모닝듀 플라멩고 6백50만원, 자연스럽게 흐르는 이슬방울을 모티브로 화려함을 강조한 모닝듀 플라멩고 하이주얼리 가격 미정, 대담한 사이즈와 현대적인 디자인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모닝듀 모던 웨이브 5백50만원, 모닝듀 컬렉션을 이층으로 레이어드해 착용할 수 있는 모닝듀 뉴 웨이브 각 55만원, 65만원, 별이 뿌려진 듯한 효과의 세팅 기법으로 로맨틱한 무드를 연출한 모닝듀 로망스 1백20만원 모두 골든듀.

Love story

진실한 감정의 폭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랜 기다림과 설레는 사랑 그 자체를 상징하는 모든 여자들의 바람, 프리포즈 링.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오른쪽 위 깃털 위부터) **까르띠에 라니에르 컬렉션** 사각형의 모티브를 연속적으로 배치한 모던한 디자인의 밴드 링으로 까르띠에의 스타디칼라다. 작은 다이아몬드를 심플하게 세팅해 데일리 링으로도 적당하다. 2백40만원대. **타사키 피아헤레 슬리테어 링** 다이아몬드의 크기와 광채를 극대화한 슬리테어 링. 여성들이 프리포즈 링으로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이다. 3천만원대. **까르띠에 웨딩 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5캐럿을 빼곡히 세팅해 화려하게 빛나는 링. 1천3백만원대. **티파니 세팅 링** 웨딩 링의 대명사이자 프리포즈 링의 시그니처인 티파니의 가장 클래식한 세팅 링. 6개의 발 물림(프롬)이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극대화한다. 1캐럿 기준 2천만원대부터.

(오른쪽 아래 깃털 위부터) **피아제 포제션 링** 플래티넘 밴드를 이중으로 디자인해 상단의 얇은 플래티넘 밴드가 3백60도 회전하는 포제션 링. 다이아몬드를 일정한 간격으로 심플하게 세팅했다. 3백만원대. **피아제 로즈 링** 장미 꽃잎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다이아몬드로 묘사한, 피아제 로즈 컬렉션을 대표하는 링. 섬세한 세팅의 화려한 디자인이 아름답다. 5백만원대. **불가리 비. 제로원 웨딩 링** 불가리 특유의 더블 로고 디자인의 화이트 골드 밴드 중앙에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심플하게 세팅했다. 유니크한 디자인을 원하는 여성에게 적당하

다. 0.3캐럿 기준 4백만원대. **불가리 코로나 웨딩 링** 프리포즈 링으로 인기가 높은 독특한 디자인의 베스트셀러 링. 왕관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다이아몬드 세팅과 플래티넘의 형태가 드라마틱한 구조를 완성했다. 0.3캐럿 기준 5백만원대. **소파드 해피 다이아몬드 링** 여배우 고소영이 선택한 웨딩 링으로 유명한 디자인이다. 스퀘어 안에 들어 있는 다이아몬드 가장자리가 독특한 세팅 링이다. 6백만원대.

(왼쪽 아래 깃털 위부터) **부쉐르 아바 피브란 링** 직역에서 영감을 받은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링. 화이트 골드에 0.2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9백만원대. **부쉐르 이터널 그레이스 슬리테어 링** 독특한 형태의 1캐럿 브릴리언트 마카스 컷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한 링. 메인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사브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다이아몬드의 크기가 더욱 커 보인다. 2천만원대. **다이아니 줄리엣 컬렉션** 막 피아니키 전의 장미꽃 봉오리 모양의 링. 6백만원대. **다이아니 서프라이즈 원 라운드 링** 다양한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믹스해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을 강조한 디자인이다. 4백80만원. **샤넬 화인 주얼리 필드 캐멜리아 링** 여백의 미를 살린 오픈 워크 기법의 여성스러운 캐멜리아 링. 활짝 핀 캐멜리아에서 영감을 받은 링으로 화려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여성에게 추천한다. 1천1백56만원.

(왼쪽 위 깃털 위부터) **티파니 노보 링** 다이아몬드의 볼륨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쿠션 컷 세팅의 노보 링. 밴드에 16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하고 여성스럽다. 1캐럿 기준 3천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플로레트 링** 7개의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작은 꽃송이 모티브의 링. 다이아몬드를 지지하는 발 물림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정교한 세팅이 특징이다. 2천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울트라 링** 화이트 세라믹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심플한 디자인의 울트라 링. 그래픽적인 모던한 디자인으로 커플 링으로도 적당하다. 24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3백58만원. **반클리프 아펠 프로세스 링** 유려한 곡선의 여성미를 강조한 디자인의 링. 메인 세팅한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는 밴드의 형태가 다이아몬드를 더 부각한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포용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1캐럿 기준 5천만원대. **티파니 웨딩 밴드 링** 티파니 로고가 새겨져 있는 밴드 링. 다이아몬드 브랜딩 로고 양쪽에 세팅되어 있다. 2백만원대. **에디트 베미진**

다이아니 02-546-3632 **까르띠에** 1566-7277 **티파니** 02-547-9488 **타사키** 02-310-1854 **소파드** 02-6905-3390 **불가리** 02-2056-0172 **피아제** 02-778-2300 **반클리프 아펠** 02-3440-5660 **샤넬 화인 주얼리** 02-3442-0362 **부쉐르** 02-543-6523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심플한 멋이 묻어나는 나우 펜던트는 서클, 클로버, 플라워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각 10만원. 여러 개 레이어드하면 더욱 멋스러운 레드 앵글 골드와 실버 각 8만2천원. 블랙 & 화이트의 모던한 믹스가 돋보이는 리믹스 링 각 11만원. 백조 모티브의 스완 이어링 14만원. 브레이슬릿에 원하는 참을 달아 자신만의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참 브레이슬릿 33만3천원. 룩적인 무드를 더한 오버사이즈 몽테뉴 브레이슬릿 47만5천원. 심플한 레어 링 각 8만9천원.



contemporary Chic

혁신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정교한 크리스털 커팅과 패셔너블한 주얼리를 선보이는 스와로브스키가 브랜드를 대표하는 얼굴로 패션 아이콘 이효리를 선정했다. 7월 22일 스완 데이를 맞아 출시하는 나우 펜던트와 함께 룩적인 요소를 결합해 더욱 트렌디하게 거듭난 2012 F/W 컬렉션 또한 주목해보자.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2012 F/W collection, rock spirit

스와로브스키의 2012 F/W 컬렉션은 'Rock Loyalty'라는 테마에 걸맞게 젊고 자유로운 감성이 충만한 아이템으로 채워졌다. 우리가 스와로브스키 하면 떠올리는 화려한 유색석 주얼리와 극도로 여성스러운 네크리스, 아기자기한 캐릭터 라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 룩적인 무드를 가미해 모던하면서도 파워풀한 면모를 드러냈다.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틀어버리는 록 시크를 구현하는 여신을 만들고 싶었지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나탈리 콜린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일렉트로닉과 시각예술에서 영감을 받은 그녀는 반항적이고 자신감에 넘치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지닌 현대 여성을 떠올리며 컬렉션을 완성했다. 도회적인 룩을 즐기는 오피스 레이디부터 밤늦도록 파티를 즐기는 클러버까지 취향이 다양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을 만큼 폭넓게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정교한 수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시덕티브(Seductive)', 이브닝 웨어에 어울리는 화려한 스타일의 '세레나(Serena)', 직사각형 크리스털 스톤으로 그래픽적인 느낌을 준 '수프림(Supreme)' 등이 그 예. 고급스러운 소재와 디테일을 강화하고 크리스털 커팅 역시 더욱 정교해졌는데, 루비와 에메랄드, 사파이어 등의 유색석은 스와로브스키만의 파베 커팅으로 반짝임을 극대화하고,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레이스와 지수 등 섬세한 소재를 더해 앤티크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스와로브스키의 새로운 뮤즈

2012 F/W 컬렉션을 빛내줄 스와로브스키의 새로운 얼굴로 패션 아이콘 이효리가 선정되었다. 아시아 최초로 스와로브스키를 대표하는 뮤즈로 활동하게 될 그녀는 스와로브스키에서 최초로

승인한 공식 모델로 의미를 더한다. 오랫동안 동물 보호 캠페인을 펼치며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스와로브스키의 철학과 역시 동물 보호에 앞장서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효리의 이미지가 더없이 잘 어울린다는 판단 아래 모델로 선정한 것이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스와로브스키의 브랜드 데이인 7월 22일 '스완 데이(Swan Day)'를 위한 광고 캠페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가 선택한 아이템은 클래식한 멋이 느껴지는 '나우 펜던트(Now Pendant)'. 이 펜던트는 가장자리에 스와로브스키만의 클리어 크리스털을 촘촘하게 파베 세팅해 은은한 반짝임을 내뿜으며, 다른 네크리스와 겹쳐 착용할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어떤 룩에나 착용할 수 있는 에브리데이 액세서리로 손색없는 아이템. 스와로브스키의 시그너처이자 우아함을 상징하는 스완, 행운을 상징하는 네 잎 클로버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선보여 자신의 스타일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심플한 화이트 티셔츠나 드레시한 원피스, 비비드한 슬리브리스 블라우스에 매치한 광고 캠페인 속의 스타일링을 참고할 것. 펜던트 모양이 다른 네크리스를 레이어드하거나 가느다란 앵글과 링, 심플한 귀고리를 룩에 따라 자유롭게 믹스 매치하면 감각적인 룩을 완성할 수 있다. 스완 데이를 맞아 6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3명을 추첨해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의 서머 패키지를 증정하며, 7월 한 달간 스완 펜던트의 크리스털 수선과 세척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니 놓치지 말 것. 문의 02-3395-9096 에디터 이예진



1 볼륨감 있는 원형의 엠마 이어링. 다양한 룩에 매치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2 펜던트 가장자리에 클리어 크리스털을 파베 세팅해 반짝임을 극대화한 나우 펜던트. 다른 네크리스와 레이어드하면 더욱 멋스럽다. 3 나우 펜던트 광고 캠페인 모델인 이효리. 4 화이트 세라믹 베젤이 모던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옥테아 스포츠 워치.

big Shopper

노트북, 비즈니스 파일, 책 등을 모두 담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수납공간과 얇고 가벼우며 실용적인 소재로 커리어
 우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쇼퍼 백(shopper bag)이 돌아왔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체앤가바나 레오파드 쇼퍼 백 비치웨어에 매치하기에도, 데일리 포인트 백으로도 제격인 트렌디한 레오파드 프린트의 쇼퍼 백. 다소 강렬하고 무거워 보일 수 있는 레오파드 프린트에 산뜻한 민트 컬러를 더해 한층 부드럽고 시원하게 연출했다. 40X31cm 1백77만원. 문의 02-6905-3677

고야드 생루이 백 많은 연예인들이 착용해 브랜드의 상징이자 스테디셀러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생루이 쇼퍼 백. 넉넉한 사이즈,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PVC 원단을 사용해 실용도가 뛰어난 것이 특징. 탈착되는 파우치가 포함되어 작은 소지품을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다. 45X32cm 1백48만원. 문의 02-3448-4778

엘레나 기셀레니 by 엘본더스타일 블랙 투톤 쇼퍼 백 지방시의 나이트게일 백을 디자인한 주인공인 디자이너 엘레나 기셀레니의 감각이 묻어나는 쇼퍼 백. 아이보리 컬러와 블루 컬러의 세련된 배색이 돋보인다. 부드러운 형태감이 내추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룩을 완성한다. 41X32cm 1백2만원. 문의 02-6905-3740

비엘타 셀마 블루 쇼퍼 백 럭셔리한 감성이 느껴지는 최고급 뱀가죽 소재의 쇼퍼 백. 수공예 작업으로 제작해 견고함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며, 세련된 블루 컬러와 무광의 부드러운 터치가 멋스럽다. 탈착 가능한 스트랩이 있어 토트백이나 슬더백으로 활용 가능하다. 43X46cm 2백40만원. 문의 02-6160-0202

토즈 프린지 백 아이보리 소가죽 프린지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파인톤 프린지 백. 움직임에 따라 훑날리는 프린지 장식이 유니크하다. 토트형 빅 백으로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며 클로징 스트랩이 있어 개폐가 간편하다. 43X32cm 3백87만5천원. 문의 02-3448-6008

펜디 페퀸 쇼퍼 백 호프만의 붓질에서 영감을 받은 페퀸 스트라이프 쇼퍼 백. 실용적인 캔버스 소재에 소가죽 소재로 포인트를 주어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옆면과 모서리 부분에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감각적인 느낌을 살렸다. 35X35cm 90만원대. 문의 02-514-3721

지미 추스칼렛 백 1960년대 빈티지 프린트에서 영감을 받아 추상적인 플라워 모티프에 에시드 컬러로 포인트를 준 스칼렛 백. 양옆에 스냅 버튼을 달아 가방의 부피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해 실용성을 더했다. 42X27cm 1백27만원. 문의 02-3443-4570 에디터 권유진



handmade Luxury

장인들의 솜씨와 정성이 정교하게 엮인 이탈리아의 수제 브랜드 헨리베글린. 천연의 색과 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가죽에 공들여 수놓은 스티치의 조화가 자아내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이 브랜드의 자부심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대표작 '버지니아 백'이 인기를 끌고 매장이 늘어나면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브랜드의 창업자이자 디자이너 툴리오 마라니가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헨리베글린의 브랜드 스토리와 그에 얽힌 매력을 직접 들어보았다.

모 인기 드라마에 자주 등장했던 표현처럼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수놓은 '올 핸드 스티치'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브랜드 헨리베글린(Henry Beguelin). 질 좋은 천연 가죽과 완성도 높은 수공예 스티치가 자연스럽고도 세련된 멋을 뽐어내는 이 브랜드는 핸드백뿐만 아니라 신발, 가구, 액세서리, 소품, 의류 등 다양한 라인을 선보이며 유럽과 미국을 넘어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발돋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텔런트 김남주가 드라마에서 자주 메고 나와 일명 '김남주 백'으로 불리는 버지니아 백이 꽤나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지난 4월 초 서울 압구정 로테오 거리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 데 이어 최근 현대백화점 본점에도 입점하며 점차 인지도와 영토를 확장해나가고 있는 헨리베글린의 매력은 뭘까.

"가장 두드러지는 차별성은 '진정한 핸드메이드'라는 점이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럭셔리 브랜드 제품들도 100% 수작업을 통해 태어난 경우는 사실 드무니까요." 얼마 전 방한한 헨리베글린의 수석 디자이너이자 최고경영자(CEO) 툴리오 마라니(Tullino Marani)는 가죽을 다루는 전통 수작업 방식을 우직하게 지켜오고 있다는 점을 눈을 빛내며 거듭 강조했다. 헨리베글린을 상징하는 사람 모양의 귀여운 심벌 '오미노(Omino, 이탈리아어로 little man이라는 뜻)'를 비롯해 어떤 제품이라도 한 땀, 한 코의 바느질까지 장인의 손끝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헨리베글린의 제품들이 정성 어린 핸드메이드 작업으로 빛어지는 곳은 밀라노 근교의 작은 도시 비제바노. 신발과 가죽으로 유명한 이 도시에 자리 잡은 공장에서 헨리베글린 소속 장인들은 가죽을 고르는 까다로운 선별 과정을 시작으로 재단과 봉제 등 모든 단계에서 순수 제작에 참여한다. 얇고 정교한 선을 내기 위한 기구에서 엄선된 최상급 가죽을 다루기 위한 가위 등 각종 도구에 이르기까지 전통 미학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티치 장식과 가죽 재봉을 위한 실마저도 면과 리넨을 꼬아 왁스로 코팅 처리한 것을 사용하는 등 이들 장인들은 세밀한 부분에서도 브랜드 고유의 '특별함'을 고집한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 또 한 명의 장인이 가방 하나를 책임지고 만드는 제작 방법을 고수하며, 이를 인증하는 사인이 들어간 '캐런티 카드'가 모든 백에 들어가 있다.

"저는 언제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사랑해왔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을 때 자유로운 분위기가 넘치는 엘바 섬에 놀러 갔다가 장인이 놀라운 수공예 솜씨로 스티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죠. 그리고 그 장인을 위해 디자인을 하기 시작하면서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브랜드가 바로 헨리베글린이고요." 벌써 1980년대 초반의 일이다. 젊은 시절 만난 이탈리아 패션 업계의 거장 엘리오 피오루치와의 인연을 계기로 디자이너가 됐다는 마라니 CEO는 당시 에스프리, 발리 등 글로벌 패션 업체에서 일하며 디자인은 물론 매장 운영, 마케팅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감각을 열심히 쌓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이 그가 디자이너이자 경영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된 셈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온종일 일에 빠져 사는 '워커홀릭(workaholic)'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마라니 CEO는 앞으로의 포부를 묻자 "이탈리아 전통의 장인 정신을 지켜가며 느린 듯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헨리베글린을 더 크게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명쾌히 답했다. "일과 여행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는 게 제 삶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브라질에 가서 한 달간 보낼 정도로 여행을 몹시 즐긴다는 그는 한국에서의 짧은 체류가 다소 아쉬운 듯 우리나라 고유의 미를 잘 드러내는 고장으로 손꼽히는 제주와 경주의 철자를 받아 적으며 훗날을 기약했다.

문의 02-547-0076 에디터 고정연



1 100% 수작업으로 완성되는 헨리베글린의 제품들이 가죽과 함께 전시돼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 소품. 2 최근 방한한 헨리베글린의 CEO이자 수석 디자이너 툴리오 마라니가 직접 브랜드 역사와 핸드메이드 작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 한국 고객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일반서울백'. 4, 5, 6 브랜드를 상징하는 사람 모양의 심벌 '오미노'를 비롯해 헨리베글린의 모든 제품은 한 땀 한 땀 순수 스티치 작업을 하는 장인들의 손끝에서 탄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cent control

무더운 여름 날씨의 끈끈함과 불쾌 지수를 한 단계 낮춰줄, 얼음 같은 청량감이 느껴지는 남성 향수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디올 옴 스포츠**
 디올 옴 스포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투스카니 아이리스 향을 풍부하게 담았다. 특 쓰는 시실리아 감귤의 상큼하고 신선한 향으로 시작해 시원한 아이리스 향이 이어지다가 버지니아 시더로 마무리되어 시트러스의 활력과 남성적인 강인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50ml 8만4천원. 문의 02-3438-9537

폴 스미스 선샤인 포맨 2012 매 시즌 새로운 디자인으로 폴 스미스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는 선샤인 에디션. 올해는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았다. 코리앤더 잎, 세니 그레이프 프루트, 블랙 페퍼, 스타 프루트가 만나 청량한 카테일과 같은 싱그러움 향이 느껴진다. 100ml 8만원. 문의 080-800-8809

베르사체 베르상스 베르가모트, 그린 만다린의 아로마 향과 샌달우드, 머스크의 풍부함이 느껴지는 중성적인 향이 특징. 팔꿈치 안쪽이나 목 뒤쪽에 사용하면 향이 서서히 피난다. 특 쓰는 남성적인 향수가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30ml 6만1천원. 문의 02-3453-7577

이세이 미야케 2012 써머 향수 메마른 피부에 활력을 주는 오아시스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스파이시 우디 시트러스 향수. 오리엔탈 이세이 미야케의 클래식한 향에 스파이시와 베티버 엠버의 상쾌함을 더해 완성했다. 무겁고 진하지 않아 2~3시간에 한 번씩 뿌려도 부담스럽지 않다. 125ml 7만7천원. 문의 02-2143-7186

세르주 루텐 엠버 스텐 1968년 세르주 루텐이 마라케시 여행에서 선물로 받은 엠버 조각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오리엔탈 느낌의 감각적인 향수. 효박, 나무 수액, 파출리와 엠버의 풍부한 향은 여름밤 테라스가 있는 와인 바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때 정열과 관능적인 남성의 모습을 한층 강조한다. 50ml 17만원. 문의 02-514-5167

엘프리오 아르마니 다이아몬드 포 맨 써머 에디션 풀잎의 싱그러움을 담은 우디 계열의 아로마틱 향수. 프레시 민트, 아이스 레몬을 더해 얼음처럼 청량한 톨노트가 코끝을 자극한다. 투명하면서도 시원한 아쿠아 향의 미들 노트로 이어지다가 쌀쌀한 코코아 향에 우디 노트가 믹스되어 에너지 넘치는 향으로 마무리된다. 여름 시즌에 맞게 아이시 블루 컬러의 그라데이션 보틀로 선보인다. 100ml 8만8천원. 문의 02-3497-9652

겐조 로투겐조 뿌르 옴 1년 내내 프레시한 스파클링 향수를 사용하고 싶은 남성을 위한 향수. 진저, 그레이프 프루트, 비터 오렌지로 이뤄진 아로마틱 제스티드 톨노트, 향나무와 라벤더의 미들 노트, 베티버와 전나무의 베이스가 어우러져 에너지틱한 향을 만들어낸다. 30ml 5만2천원. 문의 080-344-9500

샤넬 알튀르 옴 스포츠 오 엑스트렘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샤넬 알튀르 옴 스포츠의 클래식함은 그대로 유지하고, 스피어 민트, 프렌치 클리리 세이지 같은 아로마틱한 성분을 더해 새롭게 거듭났다. 첫 번째 향인 상쾌한 민트로 시작해 시실리아 만다린과 모로칸산 사이프러스의 상쾌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향수로, 스포츠를 즐기는 에너지틱한 남성에게 권하고 싶다. 50ml 9만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이예진**



빈티지한 그레이 재킷
유니티 by 셀러브레이션.
쇼트 팬츠 49만원대
코스트 웨버 하우스 by
셀러브레이션.

AFTER A BOY

'꽃미남'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내고
영화계에서 멋지게 성장해,
이제 막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배우 이민기의 스타일리시한 서머 룩.
photographed by lim han soo



화이트 패인팅 재킷,
스트라이프 쇼트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랙엔본 by 블리커.
레드 스웨이드 슈즈
88만원 파치오티.



블루 체크 패턴 셔츠
37만원 콜스미스.
블랙 강염 체크 팬츠
가격 미정 품데가르송
움므 플러스.



화이트 레더 블루종
가격 미정 **날 바넷**.
도트 프린트 셔츠
79만원 **바버리 프로섬**.
데님 팬츠 34만원
바버리 브릿.
블루 컬러 마블링
1백만원대 **볼가리**.



마스터드 컬러 피케
니트, 도트 프린팅
네이비 팬츠 모두
가격 미정 **구찌**.
화이트 몽크 스트랩
슈즈 90만원대 **발리**.





크라운모티브 블랙
코트, 화이트 롱 셔츠,
블랙 팬츠, 플라워
포인트 레이스업 슈즈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여우 프린트 셔츠 79만원,
다크 그레이 팬츠 가격 미정 모두
버버리 프로섬. 다나엘로스 앙뒤레로
스틸 러버 워치 2천만원대 불가리.

구찌 1577-1921
발리 02-3467-8313
플라키 02-547-2233
닐 바넷 02-517-8533
불가리 02-2056-0172
폴 스미스 02-3447-0278
프라다 02-3218-5335
파치오티 02-545-8757
버버리 프로섬 - 버버리 브릿
02-3485-6536
보테가 베네타 02-3438-6100
셀러브레이션 02-511-7125
플데기르송 울무 플러스
02-749-1153

헤어 이혜영
메이크업 김지현
스타일리스트 강아슬
어시스턴트 서민진
에디터 배미진



39만5천원
플랜조 시스터



30만원대 주시 꾸뛰르

Romantic Mood

로맨틱한 비치 룩을 원한다면 앙증맞은 도트와 플라워 프린트, 러플과 프릴 등 디테일이 있는 스타일을 선택할 것. 마이크로 쇼츠와 높은 에스파드류 웨지를 매치하면 모던한 핀업걸 룩을 완성할 수 있다.



2012 S/S swimwear Keyword

모래알이 반짝이는 드넓은 해변과 푸른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 수영복을 준비해야 할 때다. 이번 시즌 다섯 가지 수영복 키워드를 참고하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37만8천원 A.P.C



16만3천원
라코스테

Tommy Hilfiger



Energetic Surfing

이번 시즌 하이패션을 물들인 서핑 트렌드가 수영복에도 적용되었다. 컬러 블로킹이 돋보이는 원 숄더 원피스나 타이다이 프린트의 비키니와 함께 선 바이저, 투명한 소재의 액세서리를 매치할 것. 스포티한 무드가 배가된다.



32만원
플스미스

70만원
둘체엔가바나

Safari World

마이클 코어스를 비롯해 로베르토 카발리, 둘체엔가바나 등에서 사파리 콘셉트의 애니멀 프린트 수영복을 대거 선보였다. 여기에 라피아 모자와 나무, 원석 등 자연 소재의 액세서리를 더해 에스닉한 젯세터 스타일을 완성하라.



29만8천원
질스튜어트



1백29만원
랑방

Clean Edge

수영복도 심플한 스타일을 고수한다면 화이트, 블랙, 그레이와 같은 모노톤 컬러를 선택하자. 심플한 화이트 튜브 원피스에 케이프 형태의 가운을 우아하게 매치한 에르메스의 스타일링을 참고할 것.



Hermès



Etro



50만원대
아장 프로보카퇴르

Glam cut

몸매에 자신이 있다면 노출 지수를 화끈하게 높일 것. 원피스 수영복의 허리 와 복부 등을 깊숙하게 잘라낸 모노키니가 트렌드의 정점에 섰다. 여기에 성글게 짠 크롭트 니트나 프린지 장식의 재킷을 커버업 아이템으로 매치하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이국적인 리조트 룩을 완성할 수 있다. 에디터 **이예진**



54만원
에스까다 스포츠



보습력을 높이는 미스트 수분 레이어링

수분을 빼앗기기 쉬운 해변가나 건조한 기내에서는 집중적인 수분 케어가 필요하다.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는 수분 미스트를 뿌려주면 도움이 되는데, 이때 수분 크림과 레이어링해 사용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먼저 수분 크림을 바른 후 미스트를 충분히 뿌려주고 그 위에 수분 크림을 한 번 더 덧바를 것. 피부에 강력한 수분 막을 형성해 미스트를 여러 번 사용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비강스 상비약, 시트 마스크 비강스 파우치의 우선순위 필수품은 빨강계 달아 오른 피부를 즉각적으로 진정시키는 시트 마스크다. 호텔 방장고에 넣어 차갑게 만든 뒤 사용하면 빠른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 시트 마스크를 붙이기 전 수분 앰플이나 에센스를 바르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건조한 기내에서 사용할 때는 3~4장을 준비해 15분 간격으로 마스크를 교체해가며 사용해보자. 장시간 비행에도 메마르지 않는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단, 감박 잠이 들어 15분 이상 시간이 경과하면 오히려 피부의 수분을 앗아갈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자극 없이 간편하게 사용하는 클렌징 티슈 세안하기 어려운 기내나 여행지에서는 클렌징 티슈만큼 간편한 세안제가 없다. 하지만 뛰어난 타입의 클렌징 티슈가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클렌징 효과가 다소 떨어질까 봐 사용하기 꺼려한다면 클렌징 로션과 함께 사용해볼 것. 클렌징 로션으로 민감한 눈가와 입가,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T존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르고 클렌징 티슈로 얼굴 전체를 가볍게 닦아내면 자극 없이 말끔하게 클렌징할 수 있다.

여행지의 만능 해결사, 밤 타입 코스메틱 수분 크림, 립밤, 헤어 세럼, 부디 크림을 모두 챙겨 갈 수 없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부위에나 바를 수 있는 멀티 밤을 선택하자. 글리세린과 오일 등의 보습 성분을 고체 형태로 딱딱하게 굳혀 만든 밤 코스메틱은 보습력이 매우 뛰어나 건조한 얼굴은 물론 부르트 입술, 가진 손과 발, 부스스한 모발 끝을 부드럽게 가꿔주고, 벌레 물린 곳이나 화상 입은 부위에 발라주면 빠른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다.

멀티 기능의 자외선 차단제 휴양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자외선. 아무리 자수가 높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더라도 수시로 덧바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즉, SPF 50인 제품을 한 번 바르는 것보다 SPF 30인 선크림을 3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이럴 땐 자외선 차단 효과는 물론 잡티 커버, 미백 효과 등 멀티 기능을 더한 선크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 리퀴드 타입보다 스틱, 팩트, 파우더 형태의 제품을 고르면 더욱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과감한 컬러의 네일 에나멜 평소 nude 컬러의 네일 에나멜을 선호했다면 휴가지에서만큼은 비비드한 컬러의 네일 에나멜을 선택하자. 이번 시즌엔 과음이 흐를 것같이 신뜻한 오렌지, 레드, 옐로 등의 네일 컬러가 강세. 스크래치에 강하고 건조시킬 필요가 없는 인스턴트 네일 스티커는 간편할 뿐만 아니라 2주간 컬러가 말끔하게 유지된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라이트너, 컨실러, 틴트로 구성된 파인딩 미스터 브라이트 키트 5만5천원 **베네피트**, 일곱 가지 미네랄을 함유한 수르스 테라피7 마스크 6매입 7만7천원 **비오템**, 민감한 눈가를 위한 스트레스 릴리프 아이 마스크 10매입 3만5천원 **에스티 로더**, 미니 사이즈의 헤어 트리트먼트 오일 25ml 2만3천원 **모로칸 오일**, 스틱 타입의 미니 향수 칠리 조이 스틱 포 센서티브 스킨 10g 3만7천원 **겐조키**, 피부 재생에 탁월한 녹차 세포수를 담은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 80ml 6만원 **아모레퍼시픽**, 미스트 효과부터 자외선 차단, 미백, 콜링, 메이크업까지 다섯 가지 기능을 더한 UV 미스트 쿠션 15gx2(리필 포함) 4만5천원 **헤라**, 산뜻한 컬러가 돋보이는 르 베르니 네일 에나멜 13ml 3만원 **샤넬**,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는 이프노즈 돌 아이 워터프루프 마스크라 6.5ml 3만9천원 **랑콤**, 펜슬과 브러시가 함께 내장된 워터프루프 브로우 펜슬 듀오 0.34g 3만6천원 **에스티 로더**, 간편하게 붙여 사용하는 드라이 네일 스티커 1만3천9백원 **인코코**, 클렌저와 데이 크림, 나이트 크림이 한 세트인 마이 겐조키 투 테이크 어웨이 파우치 가격 미정 **겐조키**, 부드러운 클렌징 로션을 풍부하게 함유한 클렌징 시트 6매x3팩 1만8천원 **RMK**, 건조한 피부라면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는 오가닉 시아버터 20ml 2만원 **멜비타**, 에디터 **권유진**

베네피트 080-001-2363 **비오템** 080-022-3332 **에스티 로더** 02-3440-2772 **모로칸 오일** 1666-5125 **겐조키** 080-344-9500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 **헤라** 080-023-5454 **샤넬** 080-332-2700 **랑콤** 080-022-3332 **인코코** 02-3443-8432 **RMK** 080-990-8989 **멜비타** 02-3014-2997

기방·신클라스 다들 모자 케이트 스페이드

the instant Get

비강스를 다녀온 후 피부 트러블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그리고 여행지에서도 충분히 돋보이는 룩을 연출하고 싶다면 뷰티 파우치를 꾸리기 전, 다음의 팁을 참고하도록.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프리미엄 올 인클루시브 휴가, 클럽메드

All Inclusive Holiday

바쁜 현대인들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영양제인 여름휴가. 훌쩍 떠나기만 하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은근히 결정하고 준비할 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항공권, 공항에서 리조트까지 교통편, 편안한 객실 서비스 등이 모두 패키지 요금에 포함돼 한 번 결제하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 더구나 다양한 먹거리와 각종 스포츠, 흥겨운 오락 활동도 해결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는지. '휴가에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됐다'는 클럽메드의 '프리미엄 올 인클루시브' 휴가는 바로 그런 매력을 듬뿍 누릴 수 있게 한다.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모든 게 포함된' 프리미엄 상품

매해 많은 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여름휴가. 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에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기 위해 끊임없는 고민을 통한 결제를 여러 번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지치게 마련이다. 항공편을 시작으로 어디에서 묵을지를 결정하고, 공항에서 숙소까지는 어떻게 이동할지, 도착해서는 어떤 식당에 갈지, 밤에는 무엇을 하고 즐길지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특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의 반복과 분주함에 이미 지칠 대로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이 같은 일련의 결정은 두통거리일 터다. 가능한 한 이처럼 여행을 동반되는 온갖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리조트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 클럽메드의 '프리미엄 올 인클루시브 (Premium All Inclusive)' 상품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리조트 기업 클럽메드(Club Med).

세계 36개국의 아름다운 지역 80여 곳에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클럽메드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상품이 바로 프리미엄 올 인클루시브다. 온갖 잡다한 스트레스를 없애줄 수 있는 '행복한 휴가를 위해 설계된 이 서비스는 단 한 번의 결제를 통해 항공은 물론 객실, 1일 세 끼의 식사, 먹거리와 마실 거리, 스포츠 강습, 키즈 클럽, 그리고 저녁에는 클럽메드에서 준비한 공연과 카테일파티, 댄스파티까지, 추가 비용 없이 즐길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이다. 여행을 결정짓는 순간부터는 추가 비용이나 일정에 대한 고민과 걱

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품 이름처럼 그야말로 모든 게 포함된 프리미엄 패키지다.

클럽메드 G.O와 함께, 2배로 즐겁다

해외에서는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라 취미를 나누는 동지로서 여행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전문 트래블 도우미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 클럽메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G.O(Gentle Organizer, 리조트 상주 직원)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 중 하나일 것이다. G.O는 낮에는 스포츠 강사, 리셉션리스트, PR 담당자, 바텐더 등의 전문 포지션에서 근무하고, 저녁에는 '나이트 엔터테이너'로 변해 각종 공연과 댄스파티를 제공한다. 낮과 밤 모두 고객들에게 더욱더 행복한 휴가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팔방미인' 서비스 제공자인 것. 클럽메드 리조트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G.O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은 물론 동남아, 유럽, 미주 지역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G.O들이 빛어내는 다문화적인 정서도 뒤편 느낄 수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스포츠 활동

평소에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막연히 동경만 해오던 스포츠가 있다면 이번 여름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클럽메드에서는 전문 G.O가 스포츠 강습을 무료로 제공한다. 따라서 원하던 바다와 육지를 막론하고 다양한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바다에

서 즐기는 윈드서핑, 카약, 세일링, 스노클링은 물론 서커스(공중그네), 골프, 요가, 테니스, 양궁, 스쿼시 등도 강습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나게 배울 수 있다. 강습 시간만 전부가 아니다. 이외에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비치 발리볼, 수중 농구, 배구, 골프, 산악 자전거 등은 스포츠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기 때문에 친구, 가족과 함께 언제든지 시도할 수 있다. 만약 함께할 이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라면, 결코 어렵지 않은 대안이 있다. G.O는 물론 다른 고객(G.M)과 서로 어울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스포츠 타임'을 이용하면 된다. 모든 G.M들이 함께 모여 토너먼트 게임을 열기 때문에 매우 역동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게 특징이다.

자연에서 누리는 평온한 릴랙스 타임

조용한 공간 속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휴식의 시간을 갖고 싶다면 성인들만을 위한 수영장 '콰이어트 풀'이 기다리고 있다. 이곳에서는 파도 소리 외에는 다른 소음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수영이나 선넨,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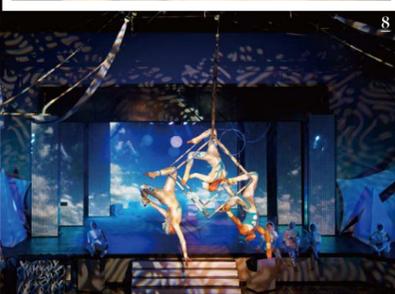
등을 즐기며 '홀로움'의 미학을 만끽할 수 있다. 더불어 리조트 바로 옆에 있는 해변에서 인락한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리조트 고객을 위해 설치한 선베드에 누워 느긋하게 카테일을 마시며 책을 보거나 낮잠을 즐기는 인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저녁 시간에는 더욱더 황홀한 장관이 연출되기도 한다. 활동적인 스포츠보다는 몸과 마음을 한결 여유롭게 달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고객이라면 클럽메드에서 아침저녁으로 해변에서 진행되는 비치 요가와 필라테스 강습을 받아도 좋을 것 같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차분히 명상에 집중하고 심신의 긴장을 늦추는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행복 지수가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완벽한 가족 휴가를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 키즈 클럽

풍경과 리조트 시설이 아무리 완벽해도 부모에게는 여행이 행복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자식이지만만 여행 기간에도 일일이 챙겨야 하는 아이들을 곁에 두고 있다 보면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게 현



- 1 발리부시대에 위치한 클럽메드 발리 리조트 전경. 2 흥겨운 춤과 이국적인 카테일을 즐길 수 있는 비치 파티. 3 파도 소리 외에는 다른 소음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콰이어트 풀. 4 클럽메드에서는 가족 단위 휴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키즈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5 멀티 카나,의 스위트룸 고객만을 위한 전용 라운지, 만타 라운지. 6 클럽메드 태국 푸엣 리조트 전경. 7 다양한 세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뷔페식 레스토랑. 8 매일 밤 열리는 G.O 공연은 클럽메드의 자랑거리다. 서커스 쇼, 코믹 쇼, 댄스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돼 있다. 9 푸엣 레스토랑의 다섯 가지 테마 중 하나인 새끼뱀.



실이다. 그렇다고 자녀를 부모님이나 친지에게 맡기고 둘만 떠나면 몸은 편해도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클럽메드는 가족 단위 휴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 '키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G.O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만 4~10세 어린이와 만 11~17세 청소년을 위해 숙련된 G.O가 각 연령대에 맞춰 아이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고 그림 그리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다. 부모님들의 오붓한 식사 시간을 위해 자녀들의 먹거리까지 G.O가 해결한다. 또 아이들이 어렵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연령 낮은 어린이를 위한 낮잠 시간까지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다. 최근에는 자연 학습과 영어 공부 프로그램이 추가돼 더욱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여행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은 진부한 듯 들리지만 만고의 진리다. 클럽메드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미식이다. 투숙하는 동안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은 물론 중간중간의 스낵 타임까지 모든 음식을 마음껏 탐할 수 있다. 메인 레스토랑에서는 아시아,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등 매일 다른 메뉴가 제공된다. 날마다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현지 음식을 맛보기를 원하거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을 즐기고 싶다면 예약제로 운영하는 스페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된다. 식사 중에는 맥주, 와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며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음료는 클럽메드의 오픈 바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아침 식사 뒤에는 상쾌한 아메리카노 한잔, 점심에는 스포츠 활동을 한 뒤에 으레 느껴지는 갈증을 트로피컬 과일 주스로 해결하면서 열기를 잠시 식혀보면 어떨까? 저녁에는 달콤 씁살한 카테일과 시원한 맥주가 기다리고 있다. 다양한 주류를 즐기면서 여러 나라에서 온 고객들과 어울려 얘기하고, 춤추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가기 마련이다. 밤의 장막이 짙게 드리워질수록 클럽메드의 분위기는 그 열기를 더해간다. 매일 저녁 드레스 코드가 달라져 고객들은 올 화이트, 블랙, 레드 등 다채로운 의상으로 차려입고 파티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또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는 극장으로 가면 G.O들이 선사하는 각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아찔한 스릴이 존재하는 서커스쇼, 화려한 댄스 공연, 심 없이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코믹 쇼, 어린이들의 깜찍한 미니 클럽 공연까지 매일 밤 다른 공연이 마련된다. 자정까지 메인 바와 해변에서 펼쳐지는 유희한 댄스파티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에디터 고성현**

클럽메드 리조트 아시아와 인도양, 아프리카 해안과 중동, 유럽 산악과 전역 지역, 지중해와 대서양 해안, 캐리비안과 미국 해안 등 세계 80여 곳에 걸친 방대한 리조트 망을 자랑한다.
꼭 알아둘 점 클럽메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상주 직원으로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리조트 전문가는 G.O(Gentle Organizer), 리조트 고객은 G.M(Gentle Member)으로 통한다.
클럽메드 비동종 카지노 행사, 키즈 휴가비 최대 1백만 원 할인 현재 클럽메드에서는 여름방학 성수기인 7월 14일~8월 17일 중 가족 여행을 최대 1백만 원 할인하는 '여름휴가 보너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클럽메드 아시아 지역 리조트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말레이시아 체람 리조트의 경우, 1인당(성인/어린이) 최대 25만 원이 할인되며, 골퍼들의 천국으로 여겨지는 인도네시아 반타 리조트의 경우엔 1인당 최대 20만 원이 할인된다(투숙일과 객실 타입에 따라 할인을 변동 가능).
키즈 클럽 생후 4개월 아이부터 만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그룹을 나눠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한다. 생후 4~23개월을 위한 베이비 클럽과 만 2~3세를 위한 프티 클럽은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편리한 예약 혜택 클럽메드 코리아 본사 홈페이지(www.clubmed.co.kr)를 통해 온라인 예약을 할 경우엔 세 가지 특별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상품 가격에서 추가 3%의 가격 할인을 받는 것은 물론 신라면세점 2만 원 상품권과 골드 카드가 즉시 발급되는 쿠폰, 클럽메드의 스페셜 기프트까지 얻을 수 있는 푸짐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문의 02-3452-0123**

Dark Revelation



샴페인의 아버지, 돔 페리뇽

팽! 요란하게 터지는 짜릿한 소음도 우아하게 들리는, 별을 가득 담은 듯 반짝이며 빛나는 샴페인(champagne)은 모두를 위한 축복의 와인이다. 루이 15세의 애첩이었던 마담 폰파두르는 “샴페인은 마시고 난 후에도 여인을 아름다워 보이게 하는 유일한 술”이라 예찬했다. 하지만 기포가 있다고 모두 샴페인은 아니다. 기포가 있는 와인은 스파클링 와인(sparkling wine)으로 분류되며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인기 있는 와인이 바로 샴페인이다. 프랑스 북단의 샹파뉴(Champagne) 지역에서 생산한 것만을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본래 발음은 지역명 그대로 샹파뉴이지만 현재는 영어식 표현인 샴페인으로 통칭하게 되었다. 최초의 샴페인은 샹파뉴 지역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돔 페리뇽(Dom Pérignon)에 의해 탄생했기에, 돔 페리뇽은 샴페인의 아버지라 불린다. 1688년, 페네틱턴 오빌리에(Hautvilliers) 수도원의 와인 담당 수도사였던 돔 페리뇽은 샹파뉴 지역의 추운 날씨 때문에 발효가 잠시 멈추었다가 봄이 되면 발효가 시작되어 탄산가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장해 놓은 와인들이 탄산가스 때문에 ‘팽’ 소리를 내며 터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의 시작이었다. 돔 페리뇽은 탄산가스를 보존하기 위해 코르크 마개를 개발하고, 샴페인의 미묘한 맛을 완성하는 새로운 블렌딩 기술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레드 와인 압착 기술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1832년 모엣&상동 하우스는 오빌리에 수도원을 복원하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와인, 보석과도 같은 샴페인을 세상에 선보인 수도사 돔 페리뇽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샴페인 ‘돔 페리뇽’을 출시하게 되었다.

극단적인 기후에서 완성한 새로운 도전, 2003 빈티지

1850년경까지만 해도 샴페인은 모두 달콤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지 않은 브뤼(brut) 샴페인에 이어 이보다 더욱 드라이한 엑스트라 브뤼(extra brut) 샴페인도 출시되고 있다. 그만큼 샴페인이 지닌 맛이 다채로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좋은 샴페인은 공통적으로 시과 향과 토스트 향, 시트러스 향, 헤이즐넛 향기를 품고 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 보다 새로운 맛과 개성을 추구하기 위해 샴페인 하우스마다 도전 정신과 더 높은 완성도를 향한 노력을 담은 빈티지 샴페인을 내놓고 있다. 샴페인 레이블을 살펴보다 보면 일반적인 와인과 달리 생산 연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출시되는 샴페인의 80% 이상이 여러 해의 와인을 블렌딩해서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산 연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샴페인을 논 빈티지(non-vintage) 혹은 멀티플 빈티지

(multiple vintage)라 부르는데 두 해 이상의 수확물을 블렌딩한 것을 의미한다. 베이스 와인의 60~80%가 그해의 포도로 이루어지고 20~40%는 이전 해의 포도를 사용한다. 생산 연도가 표기되어 있는 빈티지 샴페인은 해당 연도의 수확물 100%를 원료로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만일 샴페인 레이블에 ‘2000’이라고 적혀 있다면 오로지 2000년에 수확한 포도만으로 만든 것으로, 2000년 빈티지 샴페인이라 불린다.

물론 그렇다고 매해가 빈티지인 것은 아니다. 샴페인 하우스들이 좋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해를 지정해 ‘빈티지’를 선언하는 만큼, 빈티지의 해는 제조자들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돔 페리뇽에서 2003년 빈티지를 선보인다고 해서 다른 샴페인 하우스에서도 같은 해의 빈티지를 선보이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우스마다 보통 10년 중 3년을 빈티지로 선언하는 것이 평균적이다. 그렇다면 빈티지 샴페인의 가치는 왜 높은 것일까? 논 빈티지 샴페인은 구입 후 2~3년 이내에 마셔야 하지만 빈티지나 프레스테지 퀴베(prestage cuvée, 빈티지 샴페인보다 상위 단계의 샴페인) 샴페인은 10~15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 돔 페리뇽 빈티지의 경우 병입 후 6~8년간의 숙성 기간을 거친 다음 출시하기 때문에 장기 숙성 와인의 가치를 인정받아 가격 역시 높다. 또 기존의 논빈티지 와인이 샴페인 하우스의 개성을 담은 평균적인 맛을 선사한다면 빈티지 와인은 평균적인 맛을 넘어선 특별한 블렌딩의 정수를 맛보게 해준다. 와인 메이커는 수확과 포도 압착, 발효를 거친 후 블렌딩 단계에서 포도 품종과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빈티지의 특징을 조화롭게 담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2001년과 2003년의 빈티지 와인은 불과 2~3년의 시간 차를 두고 있는 데 반해 그해의 기후를 비롯한 다양한 개성을 담았기에 맛이 확연히 달라진다.

돔 페리뇽의 각 빈티지는 수확 연도의 특징을 넘어서 저마다 시대를 초월한 정신을 찾기 위한 극한의 노력으로 완성된 것들이다. 그중 올해 돔 페리뇽에서 선보인 2003년 빈티지는 극단적인 기후 조건이 특징이었던 해에 완성한 만큼 특별한 맛을 지니고 있다. 샴페인의 원료로 쓰이는 포도에는 피노 누아, 피노 파니에, 샤르도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돔 페리뇽 2003년 빈티지에는 피노 누아 60%, 샤르도네 40%를 사용했다. 다른 해보다 피노 누아의 함량이 높은데 이는 4월에 내린 서리가 샤르도네를 재배하는 중요한 포도 발인 코트 데 블랑 샤르도네(Côte des Blancs Chardonnay)의 전체 재배분 중 4분의 3을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마침 추위가 끝나기 무섭게 53년 만의 기록적인 더위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처럼 번덕스러운 날씨 덕분에 수확한 포도의 성숙도와 상태는 전설적인 빈티지인 1947년, 1959년, 1976년 수확분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했다. 이렇게 풍부한 맛이 나는 포도

참고 자료: 무신박, 『영진 비비블 2012』(주) 영진닷컴, 한국스피리츠협회, 한국스피리츠협회

그리스인들은 와인을 마시는 것이 관능적인 경험이라 여겼고, 돔 페리뇽 역시 새로운 빈티지의 데뷔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 다소 극적이지만 샴페인을 탄생시킨 돔 페리뇽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어둠 속의 계시’라는 독특한 테이스팅 방법을 고안했다. 진한 어둠 속에서 별처럼 맑게 빛나는, 생생한 미네랄 향기가 느껴지는 돔 페리뇽 2003 빈티지를 즐기는 특별한 방법.

로 만든 2003년 빈티지는 돔 페리뇽 와인 저장고 관리자이자 돔 페리뇽 빈티지를 만드는 리샤르 지오프로이(Richard Geoffroy)의 열정의 산물이다. 그는 기후가 극단적인 해에 돔 페리뇽의 정신을 담은 빈티지 샴페인을 완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변화무쌍한 날씨의 영향을 받은, 과도한 힘을 지닌 포도의 기운에 굴하지 않으면서도 돔 페리뇽의 정신을 담은 빈티지 샴페인을 완성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포도가 가진 힘과 기운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가지 있는 샴페인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강렬함이랄로 돔 페리뇽 2003년 빈티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키워드입니다. 돔 페리뇽은 새로운 빈티지를 생산할 때마다 창조자의 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2003년 빈티지는 이 같은 돔페리뇽의 정신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강렬한 깊이를 향한 돔페리뇽의 여정

셀러에서 8년간의 숙성을 거쳐 완성된 특별한 빈티지인 2003년 돔 페리뇽을 위해 셀러마스터인 리샤르 지오프로이와 하우스 셰프인 파스칼 탕고(Pascal Tingaud)는 ‘어둠 속의 계시(Dark Revelation)’라 일컫는 5단계로 구성된 테이스팅 방식을 선보인다. 다소 이국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어둠 속의 계시는 1시간가량 소요되는데, 어둠계 연출한 특별한 공간에서 각 단계에 어울리는 음식과 함께 돔 페리뇽 2003 빈티지를 시음하는 것이다. 이 테이스팅의 이름은 검은 보틀에 담겨 있는 진한 샴페인, 돔 페리뇽의 아이덴티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다. 테이스팅을 위한 어두운 방은 향기와 풍미를 가장 집중해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돔 페리뇽의 특징인 생생한 미네랄 향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부케, 실랑에 절인 과일과 식물, 신선한 장뇌 잎의 향기를 연상케 하는 샴페인의 향기는 어둠 속에서 더욱 극대화된다. 테이블과 의자, 접시, 조명 등 모든 요소가 시음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것으로 시음 장소 역시 박물관이나 미술관, 특별히 선정된 레스토랑 등 선별된 곳을 들인다. 각 단계별로 화이트, 옐로 그린, 레드, 다크 블랙 컬러의 음식과 샴페인의 컬러와 맛의 조화가 펼쳐지는데 이 모든 것은 돔 페리뇽의 색채와 맛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화음보다는 리듬과 불협화음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독특한 2003년 빈티지의 맛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기 위해 제한된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반드시 이러한 테이스팅을 통해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돔 페리뇽 빈티지의 맛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은 빈티지 샴페인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스웨덴의 유명한 샴페인 애호가인 리샤르 줄린(Richard Juhlin)은 돔 페리뇽 2003 빈티지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2003년 빈티지처럼 자연의 힘으로 포도의 응축이 진행되는 것은 큰 축복이다. 힘차고 풍부한 와인은 장기간의 숙성을 거친 후 마시면 좋을 것이다. 30년 정도까지 숙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극한의 상황에서 도전과 열정으로 완성한 돔 페리뇽의 2003년 빈티지는 샴페인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에디트 배미진**



‘어둠 속의 계시(Dark Revelation)’ 5단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돔 페리뇽 2003년 빈티지의 특별함

1 White_ Rich and Creamy 미슐랭 3스타 요리사 알랜드 파사드가 개발한 반숙 계란 요리. 화이트가 상징하는 크리미한 계란의 식감과 돔 페리뇽 2003년 빈티지의 질감이 어우러져 빈티지 샴페인의 살아 있는 풍부한 느낌을 표현한다.

2 Yellow_ Structure and Minerality 블랙 컬러의 플레이트에 담긴 노란 컬러의 사프란 리스토. 고풍스러운 광물 향이 수직으로 뿜어나가는 돔 페리뇽 2003년 빈티지는 7년간 숙성된 쌀과 사프란을 통해 표현된다. 음식과 와인이 물질과 물질로 만나 정밀한 상호작용이 펼쳐진다.

3 Red_ Magnificently Vibrant 작고 알은 화이트 컬러의 원형 그릇에 담긴 반짝이는 진한 레드 컬러 허비스커스 젤리. 풍부하고 양면적인 돔 페리뇽이 경이로운 생동감을 드러내고, 허비스커스 젤리와외의 만남으로 관능적이며 다차원적인 극적 조합을 이루어낸다.

4 Green_ Seductive Citrus Aromas and Bitterness 곱게 간 일본 녹차 기루인 말차를 뜨거운 물에 풀어 소형 대나무 거름기로 저어준 후 투명한 유리잔에 담아낸다. 돔 페리뇽 빈티지의 상징인 매력적인 감귤류의 산미와 씹살한 맛을 느낄 수 있다.

5 Dark_ Structure of Its Edgy Equilibrium 다양한 요소가 한데 어우러지고, 힘찬 긴장감이 모든 요소를 감싸는 돔 페리뇽의 궁극적 차원을 만나는 단계. 푸아그라에 얹은 검은 플레, 보야생차, 캐비아 아라 로얄을 통해 깊이와 예리한 균형을 넘치는 구조를 표현한다.



골든 트라이앵글에서의 럭셔리 글램핑

Exotic Hideaway



“파이(Pai)” 코끼리 목에 올라타 두 발로 힘껏 코끼리 귀 뒤를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른다. 그 신호만을 기다렸다는 듯, 5톤에 달하는 거대한 코끼리는 몸을 일으켜 여행자를 태우고 천천히 정글로 향한다. 리조트에 도착하면 아기 코끼리가 꽃목걸이를 걸고 코를 번쩍 들며 친구가 되어줄 새로운 손님을 반긴다. 아시아의 그 어느 곳이 이보다 더 이국적일 수 있을까.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글램핑의 정수, 포시즌스 리조트 텐티드 캠프

지금 세계를 사로잡은 여행 트렌드는 럭셔리한 캠핑, 바로 글램핑이다. 태국 치앙라이에 위치한 포시즌스 리조트 텐티드 캠프는 글램핑의 시조이자 정수이다. 이미 세계적인 여행 매거진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에서 선정한 최고의 캠프 리조트에 이름을 올려 수많은 여행 마니아들의 버킷 리스트로 자리 잡았다. 모름지기 캠핑은 모험과 스릴을 동반해야 하는데, 이 텐티드 캠프의 지리적 위치야말로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이 캠핑에 적합하다. 리조트는 메콩강을 끼고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의 국경 지대를 뜻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에 위치하는데, 미국 마약 수사대에서 ‘물든 트라이앵글’이라는 명칭을 붙였을 만큼 과거 세계적인 마약 산지로 악명을 떨치던 곳이다. 물론 지금은 태국의 국가적 사업에 의해 평화로운 곳으로 탈바꿈했지만, 아편의 모든 것을 전사한 아편 뮤지엄이 있을 정도로 독특한 역사를 지닌 것만 큼은 분명하다. 과거 아편에 의한 분쟁 지역이었고 세 국가의 국경 지대이기 때문에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여전히 울창한 정글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 메콩강 줄기가 내려다 보이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한 대나무 정글에 포시즌 골든 트라이앵글 리조트가 위치하고 있다.

텐트 초록으로 가득한 정글 속에 위치한 단 15개 동의 텐트. 텐트 한 동당 2명이 투숙하기 때문에 만실이어도 투숙객은 30명 안팎에 불과하다. 텐트 스타일의 호텔이 아닌, 화장실 문을 지퍼로 열어야 하는 잔차 텐트다. 물론 19세기 스타일의 수공예로 제작한 상아와 대리석으로 만든 완벽하게 이국적인 풍경의 인테리어는 그 어떤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화려하고 편안하다. 대나무 정글 깊은 곳, 언덕 위에 지은 텐트는 미얀마의 루악강과 라오스산맥, 초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아침이면 불을 켜지 않아도 텐트 전체가 태양 빛으로 환해지고 저녁이

면 텐트를 둘러싼 나뭇잎들이 텐트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새벽이 되면 도무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새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지저귀고, 새벽에 스콜이라도 쏟아지면 텐트 전체에서 울리는 우렁차고 박력 넘치는 빗방울 소리 덕에 온몸으로 비를 맞는 기분이 든다.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빛과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평소의 의식하지 못했던 소리와 변화에 눈과 귀, 마음이 모두 열린다. 스트레스가 무더졌던 오감이 리셋되는 기분이이다.

모든 것이 갖춰진 특별한 캠핑

캠핑이든 글램핑이든 먹을 것을 빼놓고 여행을 이야기할 수 없다. 놀라운 사실은 포시즌스 골든 트라이앵글에서는 음식부터 와인, 음료까지 모든 것이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레스토랑에서는 모든 음료와 와인, 맥주, 칵테일을 제공한다. 리조트 내에 요리사가 직접 경작하는 작은 농장이 있어 이곳에서 신선한 채소를 조달한다. 포시즌스 리조트의 명성에 걸맞게 기나막다 새로운 메뉴와 와인을 선보여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진정한 휴식이 가능하다. 만일 레스토랑이 아닌 야외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면 정성이 가득 담긴 런치 박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자기로 만든 멋진 도사락에 정갈하게 담은 과일과 요리, 시원한 음료와 물수건을 피크닉 바구니에 넣어 원하는 장소로 배달해준다. 수영장의 선베드에서 점심을 먹거나, 정글 꼭대기에 올라가 메콩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피크닉을 즐길 수도 있다. 매일 밤 투숙객들의 담소가 이어지는, 메콩강의 지류가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의 버마 바(Burma Bar)에서는 칵테일과 케이터링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바텐더에게 추천 메뉴를 물으면 버마 바의 시그니처인 ‘레몬그라스’ 칵테일을 순식간에 만들어준다. 포시즌 골든 트라이앵글에서는 아쉬운 것이 없다. 일하



1 대나무 정글 안쪽에 위치한 텐트 전경. 2 텐트 데크에 놓인 저주지. 3 수공예로 만든 텐트의 인테리어. 4 매일 저녁 칵테일 파티가 열리는 버마 바. 11월부터 1월까지의 박스룸을 연다. 5 독특한 구조의 와인 셀러. 프라이빗한 디너를 경험할 수 있다. 6 리조트의 가장 높은 곳인 캠프 피크에서 칵테일 파티를 즐길 수 있다. 7 그림자 텐트에 누워서 내리막 대나무 정글의 나무 그림자가 텐트에 어른거려 특별한 정취를 선사한다. 8 원하는 곳으로 가져다주는 런치 박스 서비스. 샌드위치와 샐러드, 음료를 비롯한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9 버마 바의 시그니처 칵테일 ‘레몬그라스’. 10 버마 바에서 바라본 메콩강 지류의 풍경. 11 코끼리를 탄 투숙객이 유유히 정글을 거닐고 있다.



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멋진 곳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부터 바텐더까지, 작은 와인 파티를 마치고 자신의 텐트로 향하는 투숙객들의 안전을 위해 “숙숙” 하고 가는 소리가 나는 페트로마스 램프를 들고 길잡이가 되어주는 가이드도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한 반짝이는 미소를 보여준다. 럭셔리 리조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파 서비스도 투숙객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 정글 한가운데 위치한 스파 하우스에서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스파를 받거나, 텐트 발코니에서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스파를 즐길 수도 있다. 만일 초록의 한가운데서 요가를 하고 싶다면 프라이빗 요가 클래스도 경험할 수 있다. 문명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자연에서 깊은 심호흡을 내쉬는 순간,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느껴진다.

원시와의 교감, 코끼리 트레킹

이곳을 찾은 여행자들은 모두 코끼리를 타는 경험을 한다. 도시에서 살던 여행자가 럭셔리한 텐트에서 아침을 맞이한 뒤, 평화롭게 코끼리를 타고 메콩강변을 산책하는 이 독특한 풍경은 직접 경험한 에디터가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믿기 어려운 광경이다. 하지만 방콕에서 비행기로 1시간 30분, 태국의 깊은 북부 치앙라이, 코끼리의 천국이라 불리는 포시즌스 리조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처음에는 코끼리를 타는 것이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안장 하나 없이, 코끼리가 스스로 몸을 숙여주면 코끼리의 귀를 잡고 목에 올라타야 하는데, 코끼리의 키가 3m에 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찔한 기분이 든다. 평생 만져보지 못했던 코끼리 가죽의 이질적인 촉감, 마훗(mahout, 코끼리 조련사)이 알려준, 코끼리를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단어에 의지해 코끼리를 타는 것은 평생 해본 것 중 가장 큰 도전이다. 하지만 목에 올라타 코끼리를 쓰다듬으면 교감이 이루어진다. 유끼, 팡퐁, 붓마 등 코끼리마다 이름이 있어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으면 마치 강아지를 만지는 것처럼 리얼한 느낌이 전해진다. 코끼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총명해서 ‘파이(pai : 앞으로), 뽀(baen : 옆으로 돌기), 하우(how : 멈추기)’와 같은 단어를 확실하게 기억해 지시하면 하면 정확히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다. 리조트 안에 위치한 코끼리 우리에서 시작한 코끼리 트레킹은 정글을 지나 메콩강까지 1시간 동안 이어진다. 아침을 먹기 위해 레스토랑을 찾으면 투숙객들이 아기 코끼리가 입안에(혹은 코에) 넣어주는 바나나를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코와 몸을 쓰다듬으면 체온과 함께 아기 코끼리의 행복감이 그대로 전해져온다. 포시즌스 골든 트라이앵글에 코끼리가 많은 이유는 단지 여행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코끼리 파운데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30여 마리의 코끼리를 보호하고 있다. 태국 전체에 남아 있는 4천여 마리의 코끼리 중 약 10%를 담당하는 상업적으로 이용당하던 코끼리들을 구출해 리조트에서 돌보는 것이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코끼리들은 이곳에서 비로소 오랜 굴레를 벗고 마음껏 먹고 휴식을 취한다.

미얀마와 라오스, 세계를 탐험하다

이미 새로운 콘셉트의 여행을 위해 포시즌스 골든 트라이앵글을 찾았던 리조트 안에서의 휴식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운 여행자들이었다.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텐티드 캠프에는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스탬프 투어다. 보트를 타고 메콩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의 국경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의 핵심 지역이 나온다. 이곳에서는 여권에 한 번에 3개국의 스탬프를 동시에 찍을 수 있다. 이보다 조금 더 박진감 있는 경험을 원한다면 미얀마 투어를 해볼 수도 있다. 공산주의 국가인 미얀마는 아직까지 자신만의 문화를 간직한 고산족이 남아 있는 독특한 여행지로 사원과 박물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경관까지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여행의 고수가 되어갈수록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길 원한다. 좋은 곳을 많이 다녀본 사람일수록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여행을 원한다. 누군가의 버킷 리스트에 담겨 있는 여행지, 자연을 가장 자연답게 느낄 수 있는 글램핑의 정수 포시즌스 리조트 골든 트라이앵글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유니크한 여행의 진수가 담겨 있다. 이곳이 라면 마치고 생애 첫 번째 여행처럼, 수많은 여행자들에게 가슴 떨리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IS** 에디터 배미진

입장료 한국에서 방콕까지 5시간 30분, 방콕에서 치앙라이까지 비행기로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태국 국적자인 타이항공이 방콕까지 하루 4번, 방콕에서 치앙라이까지 하루 3번 운항한다. 치앙라이공항에서 포시즌스 텐티드 캠프까지는 자동차로 1시간 30분 걸리는데, 리조트에서 렌트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용료 타이 최북단에 있는 치앙라이는 치앙마이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있다. 미얀마 국경이 있는 안팎 사이 남쪽으로 62km 떨어진 곳에 있다. 메콩강이 북쪽을 따라 흐르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메콩강으로 합류한다.

이용료 태국의 화폐 단위는 바트(THB)로 1백만바트당 37.27원이다 (2012년 5월 25일 기준). 시차는 서울보다 2시간 느리다.

포시즌스 텐티드 캠프,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경험할 수 있는 패키지
포시즌스 텐티드 캠프는 하루나더와 여행객을 위해 9월 30일까지 특별한 패키지를 선보인다. 태국 내 4개 호텔과 리조트인 포시즌스 호텔 방콕, 포시즌스 리조트 치앙마이, 포시즌스 리조트 코사무이, 포시즌스 텐티드 캠프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포시즌스 텐티드 캠프에서 3박 이상 숙박 시 태국 내에서 원하는 포시즌스 호텔 2박 무료 숙박이 가능하다.

3박 4일 패키지 여행 패키지 포시즌스 텐티드 캠프 골든 트라이앵글 1 텐티드 캠프 3박(2인 1실) 2 와인과 양주 포함된 모든 음료와 식사 3 코끼리 트레킹과 골든 트라이앵글 어드벤처를 포함한 모든 액티비티 4 스파 트리트먼트(1인당 1회) 5 치앙라이국제공항-리조트 간 개인 셔틀 서비스 6 다음 세 곳의 포시즌스 리조트 중 택일해 2박 (포시즌스 호텔 방콕 슈피리어 룸 2박, 포시즌스 리조트 치앙마이 거든 파빌리온 2박, 포시즌스 리조트 코사무이 윈드베르블리 2박)
한국 문의 02-777-8178

현지 주소와 연락처 Four Seasons Resort Tented Camp, Chiang Saen Post Office, Chiang Rai 57150, Thailand
전화 66 (0) 53 910-200 팩스 66 (0) 53 652-189
홈페이지 www.fourseasons.com/goldentriangle



포도주 명가 워르통가의 부티크 호텔

La Maison Bord'eaux

워르통의 부티크 호텔 라 메종 보르도(La Maison Bord'eaux)는 그 이름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보르도의 집', 또 하나는 '물가의 집'. 실제로 보르도는 프랑스의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부르주아 지역으로 포도주의 고장이다. 좋은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일조량과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그 두 가지를 이상적으로 갖춘 곳이 바로 보르도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이는 보르도에서 모던한 인락함과 맛있는 워르통 포도주를 즐길 수 있는 부티크 호텔을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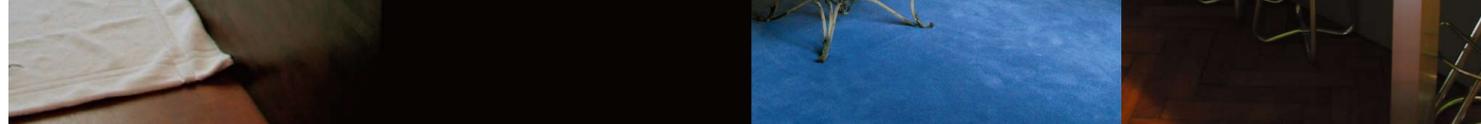
워르통가의 와인들

프랑스의 유명한 마고 생산자인 워르통가의 10여 개 성은 모양과 특징이 저마다 다르다. 보르도를 비롯해 메도크와 마고 지방에 넓게 분포한 성들은 해마다 최고의 포도주를 생산한다. 그들의 성 가운데 마고 와인 사토 칸트낙을 포함한 메도크 와인을 생산하는 사토 라투르 드 베상은 워르통가의 중심을 이루는 와인 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곳에서 생산된 와인을 만나볼 수 있다. 세련되고 우아하며 섬세한 맛을 기본으로 하는 마고를 생산하는 브란 칸트낙 성은 보기보다는 작고 아담한 곳이다. 그러나 그 성을 둘러싼 현대적인 건축물의 포도주 공장과 창고, 연구실은 프랑스의 북부 지역인 브르타뉴 지방의 고전적인 아담한 성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특하나 그 앞으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게 펼쳐진 포도밭은 마치 포도나무 잎사귀와 포도의 향으로 넘실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준다. 90헥타르라는 넓은 면적의 포도밭을 소유한 브란 칸트낙 성은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곳으로 어떤 맛도 우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끊이지 않는 연구의 결실이라고 자랑한다. 그들은 워르통의 전통에 따라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포도를 수확하고 그 이후 전자동 시스템으로 포도를 가공하면 또다시 사람의 손길과 자연의 결정에 맡기는 방식으로 생산한다.

마고 포도주와 더불어 보르도 지방 와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짙은 향을 지닌 메도크를 생산하는 사토 라투르 베상은 20헥타르의 토지 한가운데 서 있는 작은 성으로 베를린의 미니멀한 건축양식을 따라 현대적으로 설계된 곳이다. 이곳은 1254년 귀족인 블랑크 포르트가 자신의 영토를 둘러보기 위해 머물던 별장의 성이었다. 이후 이곳은 1390년까지 그의 후손들에 의해 보존되었으며 그 이후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 유명인들과 귀족들을 거쳐 프랑스의 유명 작가인 몽테스키외가 소유하였고 1972년 루시앙 워르통에 의해 포도주 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메도크 와인과 마고 와인의 자존심을 걸고 연구와 수확에 몰입하여 급기야는 프랑스의 와인 성들 중 가장 중요한 포도주 성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지금은 그의 딸 중 하나인 마리 로르 워르통이 그 전통 깊은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La maison Bord'eaux

워르통가 딸들 중 하나인 브리짓 워르통은 보르도에 자그마한 부티크 호텔을 열었다. 보르도는 포도주 비즈니스맨과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도시지만 왜 그런지 매력적인



색을 지닌 부티크 호텔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브리짓 워르통은 이 집에 착안해 보르도 여행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호텔을 지은 것이다. 그녀는 아직 제대로 된 포도주의 참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포도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좋은 포도주를 음미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사람들이 그녀의 호텔에서 평화로운 안식을 취하다 떠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호텔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살롱과 한가한 분위기 속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서재, 아침 식사를 위한 야외 테라스, 그리고 6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6개의 방은 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각각의 색으로 꾸며졌다. 대학에서 색채학을 전공한 브리짓은 각 방을 화사한 분위기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조와 콘셉트가 같은 가구들로 직접 디자인하였다. 클라리스, 장, 셀리아, 멜라니, 디에그, 아폴린. 모두 6명의 아이 이름으로 불리는 각 방의 분위기는 실제로 브리짓가 자신의 아이들의 모습과 성격을 연상시켜가며 꾸며주고 한다. 또 호텔 곳곳에서는 현재 프랑스와 유럽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어 매력적인 모습을 더한다.

“예술을 좋아하고 예술 작품을 컬렉션하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디자인적인 것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그럼으로써 빨리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디자인은 순수 미술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할 때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단순히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은 가끔 너무 무미건조하고 폭력적으로 다가오곤 하죠. 순수 미술을 생활에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만의 멋진 공간으로 꾸밀 수 있죠. 그런데 순수 미술을 논하기 시작하면 모두들 어렵게만 보이는데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술은 살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다 지적이고 섬세한 삶을 위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풀어야 할 큰 숙제와도 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에겐 열정을 갖는다는 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일이에요. 작고 낡은 아파트를 사서 그 안을 개조하고 저만의 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정말이지 힘이 드는 일이었지만, 그만큼 흥미진진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하나하나의 공간이 제가 설계한 모습대로, 또 제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탄생되었을 때 느낀 희열은 그 어떤 것보다 비싸고 싶지 않은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각각의 방들에 머무는 사람들의 편의를 돕고 조용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동시에 그들에게 저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표현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표현 방법을 찾는 거죠.” 각 방의 색조와 빛의 밝기에 따라 선택한 페인팅 작품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하며 공간과 어우러진다. 또 옛 프랑스식 아파트의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달팽이 계단과 도자기 타일 플로어, 그 위에 놓여 있는 필립 스타크의 가구들과 조명, 그리고 프랑스 화가들의 강렬하고 다양한 색채의 페인팅은 고풍스러움과 현대적인 아름다움이 잘 조화되어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쉽게 편안함을 만끽하고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LSI 글 지은경** 인테리어리스트 · 유럽 통신원



• **Lucien Lurton & Fils, la passion des terroirs**
88, Route de Cadujac 33650 Martillac tel 33(0)5-5783-1010 fax 33(0)5-5783-1011 www.lucienlurton.com e-mail france france@lucienlurton.com e-mail export contact@lucienlurton.com

• **Château Brane-Cantenac 마고 포도주 성**
33460 Margaux tel 33(0)5 57 888 333 fax 33(0)5 57 88 72 51 contact@brane-cantenac.com www.brane-cantenac.com

• **Château La Tour de Bezan 메도크 포도주 성**
2036 Chalet 33480 Moulis en Médoc tel 33(0)5 5658 2201 fax 33(0)5 5658 1510 lgcr@wanadoo.fr

• **La maison Bord'eaux 보르도의 와인들의 호텔**
113, rue Dr Albert Barraud 33000 Bordeaux tel 33(0)5 5644 0045 fax 33(0)5 5644 1731 contact@lamaisonbord-eaux.com www.lamaisonbord-eaux.com

브리짓 워르통의 부티크 호텔을 비롯해 워르통가의 포도주 성은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에 있다. 파리의 오를리앙에서 보르도행 비행기를 타거나(시간 정도 소요) 몽파르나스 기차역에서 보르도행 기차(3시간 소요)를 타면 된다. 호텔 메종 보르도의 숙박비는 1박에 2백~3백유로 정도이며 호텔에서는 최고의 워르통 포도주를 즐길 수 있다. 와인 성 견학과 방문은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에는 워르통의 전통 와인들을 맛볼 수 있는 시음 홀이 마련되어 있다.

Shower time

넘쳐나는 땀을 주체할 수 없는 계절. 빨리 집에 들어가 시원한 물로 씻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촉촉한 수분력은 기본, 상쾌한 향과 신뜻한 텍스처를 겸비한 샤워 제품이 필요한 순간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맨 위쪽부터 차례대로) 디올 자도르 퍼퓸드 샤워 젤 자극적이지 않은 플로럴 향이 샤워 후에도 은은하게 지속되는 크리미한 샤워 젤.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이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준다. 흡수가 빨라 바로 옷을 입어도 묻어나지 않아 바쁜 아침 시간에 유용하다. 200ml 6만원. 문의 02-3438-9537

로라 메르시에 크림 바디 워시 소량으로도 풍성한 거품이 생기는 보디 워시. 코코넛, 오트, 옥수수에서 추출한 오일이 피부 표면을 벗겨내지 않고도 하루 종일 쌓인 불순물을 깔끔하게 없애주며, 마카다미아 너트 오일, 시어버터가 건조하고 푸석한 피부에 촉촉함을 남긴다. 프레시 피그, 아몬드 코코넛, 피스타치오 등 세 가지 향으로 선보인다. 236ml 5만2천원. 문의 02-514-5167

블리스 패블러스 포밍 바디 워시 풍부한 수분감이 느껴지는 보디 클렌저 겸 각질 제거제. 미세한 호호바 알갱이가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며,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유유와 시트러스, 천연 AHA 성분이 풍부해 민감한 피부에도 데일리 보디 클렌저로 사용하기에 좋다. 각질을 제거하고 싶지만 굵은 스크럽 알갱이가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추천한다. 473.2ml 3만4천원. 문의 02-514-5167

클라란스 스무딩 바디 스크럽 포 뉴스킨 인도 뽕나무에서 추출한 식물 성분이 죽은 각질을 자극 없이 탈락시켜, 피부결을 정돈해주는 보디 스크럽. 독소 배출에 탁월한 모링가 오일 추출물이 들어 있으며, 미모사, 칸데리아나무, 리퀴라이스루트 추출물이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킨다. 팔꿈치나 무릎, 발뒤꿈치 등을 집중해서 마사지하면 각질이 쌓이지 않을뿐더러 까맣게 변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1~2회 사용하면 좋다. 200ml 4만5천원. 문의 02-3014-2916

달팡 너리싱 앤 페밍 벨벳 크림 달팡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보디 케어 트리트리먼트. 유기농 시어버터, 스위트 아몬드 추출물 등 순수한 자연 성분을 농축한 리치한 크림이다. 까칠한 피부를 다독이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각질이 쌓이기 쉬운 팔꿈치나 발뒤꿈치에 두툼하게 발라주면 금세 보들보들해진다. 섬세한 화이트 플로럴 향은 심신의 안정을 돕는다. 200ml 8만원. 문의 02-3440-2786

비오템 해초 모공 비누 모공 속 묵은 노폐물을 깔끔하게 제거해주는 모공 케어 비누. 갈색 해초 추출 알갱이가 피부 표면의 각질을 자극 없이 씻어내며, L 디지타타 성분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없애 뽀루지와 같은 피부 트러블을 예방한다. 100g 2만5천원. 문의 080-022-3332

샤넬 벨벳 바디 오일 사용하기 편한 스프레이 타입의 보디 오일.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분사하고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려주면 촉촉함을 남기고 빠르게 흡수된다. 낮에도 사용 가능한데, 건조하거나 튼 부위에 미스트처럼 뿌려주면 수분을 공급해주고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플로럴 오리엔탈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오일이 너무 끈적하거나 번들거린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만족할 만한 선택이 될 듯. 200ml 8만3천원. 문의 080-332-2700

딤티크 로 드 헤스페리데스 샤워 후에 뿌리는 보디 미스트. 비터 오렌지와 만다린, 레몬의 싱그러움이 페퍼민트, 에버래스팅 플라워와 만나 감미롭고 프레시한 향을 선사한다. 자신의 체취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향수와는 또 다른 특별한 향을 느낄 수 있을 듯. 100ml 13만8천원. 문의 02-514-5167 에디터 **이예진**



라코스테 도쿄 시부야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라코스테가 도쿄 시부야에 아시아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2012 S/S 시즌 남성과 여성 컬렉션을 비롯해 라코스테를 대표하는 폴로 티셔츠를 시리즈로 만날 수 있으며, 젊고 경쾌한 라코스테 라이브 스타일 또한 준비되어 있다. 문의 02-550-1181

나나리치 슬림 언-컨 슈트 나나리치에서 슬림 언-컨 슈트를 제안한다. 두꺼운 어깨 패드를 없애고 기능성을 라이크라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부드러운 착용감이 특징. 주름을 방지하는 신축성 좋은 스트레치 원단으로 움직임이 많은 날에도 항상 세련된 아웃 핏을 연출할 수 있다. 네이비와 차콜 그레이 2가지 컬러로 출시. 문의 070-7130-7786

폴 스미스 주니어 2012 스вим 웨어 컬렉션 폴 스미스 주니어에서 여름을 위한 스вим 웨어 컬렉션을 선보인다. 멀티 스트라이프 프린트의 트렁크 스타일과 리플이 달린 핫팬츠 원피스 수영복, 파스텔 톤의 벨, 도트 무늬를 더한 램프 스커트 등 밝고 경쾌한 컬러와 편안한 착용감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구성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9층 폴 스미스 주니어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2143-7996

헨리베글린 버지니아 백 헨리베글린이 '버지니아 백'을 제안한다. 이탈리아 가죽 장인의 손길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 백은 가방 안쪽의 포켓까지도 수작업으로 처리해 완성도를 높였으며, 모양과 크기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가방 양옆에 벨트 장식을 더했다. 문의 02-516-8786



나나리치



라코스테



폴 스미스 주니어

헨리베글린

JEWEL



스와로브스키 나우 펜던트 출시 스위로브스키에서 올해 세 번째로 맞이하는 7월 22일 스완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나우 펜던트'를 한정 출시한다. 세울 펜던트 가 장자리에 스위로브스키만의 클리어 크리스탈을 촘촘히 파베 세팅했으며, 다양한 제품과 믹스 매치하기 좋은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 브랜드의 심벌인 스완과 행운을 상징하는 네 잎 클로버 등 2가지 버전으로 출시한다. 문의 02-3395-9096

오메가 런던올림픽 광고 캠페인 공개 오메가가 올림픽의 역사와 위대한 순간을 담은 런던올림픽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중국 다이빙 쿠키보, 미국 수영 선수 니탈리 코글린 등 선수들의 일상생활과 경기 전 순간들을 엿볼 수 있으며, 롤링 스톤스의 음악 사운드 트랙이 함께했다. 오메가의 TV 캠페인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올림픽 히스토리, 그리고 고화질 이미지 등은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www.omegawatches.com

까르띠에 아그라프 펄 까르띠에를 대표하는 진주 컬렉션 '아그라프 펄'을 새롭게 선보인다. 까르띠에 전문가가 엄격하게 선별한 최상의 담수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아그라프 모터브를 더해 광채를 극대화했다. 현대적인 감각과 클래식한 멋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듯. 문의 1566-7277

샤넬 화인 주얼리 2012 울트라 컬렉션 샤넬 화인 주얼리에서 2012 울트라 컬렉션을 선보인다. 세라믹이라는 하이테크 소재를 처음 화인주얼리 제작에 도입한 이후 10여 년 동안 울트라 컬렉션을 선보인 샤넬은 블랙과 화이트의 강렬한 대비와 그래픽적인 라인으로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문의 02-3442-0962

블랑팡 피프티 패티즈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컴플리트 캘린더 블랑팡의 역사적인 모델인 피프티패티즈의 새로운 모델, 피프티 패티즈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프 컴플리트 캘린더를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다이아 워치에 어울리는 시원한 블루 사피이어 컬러의 다이얼이 인상적이며, 기존의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모델에 문페이즈와 컴플리트 캘린더 기능을 추가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준다. 문의 02-3438-6268

브레게 트래디션 7027BB 브레게에서 '트래디션 7027BB'를 선보인다. 화이트 골드 케이스 안에는 브리지와 바그리고 1970년에 특허를 받은 충격 방지 파라슈트 구조가 장착되어 견고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력을 엿볼 수 있으며, 12시 방향에 위치한 오프 센터드 챗터링은 블루 컬러의 파우 리저브와 조화를 이룬다. 워치 내부 구조가 오픈되어 있어 정교한 피니싱과 무브먼트의 아름다움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2-3438-6218

SHOWROOM



골든듀

골든듀 모닝듀 런칭 10주년 기념 이벤트 골든듀가 브랜드의 베스트 셀러이자 시그니처 주얼리인 모닝듀 런칭 10주년을 맞아 골든듀 창당 본점 및 전국 백화점 매장에서 7월 29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10년간 약 7만 개 이상 판매한 '모닝듀 클래식' 펜던트와 이어링을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1백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구매금액별 백화점 상품권 10%를 증정하는 것. 또 가장 인기 높은 베스트 디자인 10가지 품목을 7월 15일 단 하루만 파격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스페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골든듀 주얼리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놓치지 않아야 할 좋은 기회다. 문의 02-3415-5713



로라 메르시에

로라 메르시에 포 래쉬 마스크라 로라 메르시에에서 '포 래쉬 마스크라'를 선보인다. 여러 번 덧발라도 묻치지 않는 부드러운 포몰러는 볼륨감이 극대화되며, 아카시아, 밀랍, 호호바 등의 성분이 속눈썹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든다. 문의 02-514-5167

불가리 몽 자스민 노와로 엑스퀴즈 불가리에서 '몽 자스민 노와로 엑스퀴즈'를 출시한다. 상큼한 프루티 악센트 핑크 포멜로와 프레시 그린 아몬드 신선한 향으로 시작해 부드럽고 우아한 자스민 향으로 이어지다가 화이트 머스크와 딜라이트 풀 우드의 달콤한 터치로 마무리되는 싱그러움 향수다. 문의 080-990-8989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 출시 아모레퍼시픽이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아산안 보태니컬 성분을 고농축한 안티에이징 미스트로, 고운 입자가 얼굴 전체에 분사되어 촉촉함을 남긴다. 문의 080-023-5454

에스티 로더 옵티마저 인텐시브 부스팅 로션 에스티 로더에서 '옵티마저 인텐시브 부스팅 로션'을 출시한다. 강화 대나무 복합체와 에스티 로더만의 독점적인 아쿠아시크 기술을 집약한 3종류의 에센스 워터는 칙칙한 안색을 개선하고 주름을 완화하는 등 전반적인 피부 개선을 돕는다. 문의 02-3440-2772

클라란스 HD 바디 리프트 점보 사이즈 출시 클라란스는 보디 슬리밍의 베스트 셀러 'HD 바디 리프트'의 점보 사이즈를 한정 출시한다. 피부의 윤곽이 톤톤 사에서 추출한 성분이 지방 분해를 촉진해 탄력 있는 보디라인을 만든다. 문의 02-3014-2916

버버리 뷰티 워드 글로시 박스 버버리 뷰티가 글로시 박스 한국 런칭 1주년을 기념해 '버버리 뷰티 워드 글로시 박스'를 출시했다. 글로시 박스를 통해 단독으로 선보인 스페셜 박스로, 버버리의 베스트 셀러 아이템으로 구성되었다. 문의 02-3447-9678